Weekly 공감

PyeongChang 2018
PyeongChang 2018 PARALYMPIC GAMES

G-270

No.403 | 2017. 05. 15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다

korea.kr/gonggam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손잡고
미래를 위해 같이 전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KOR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광장 채웠던 성숙된 힘으로 대통합 시대를 열자!

2017년 5월 9일은 정치사에 영원히 기억될 날이다. 명예로운 시민혁명을 통해 자랑스러운 새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매우 감동적이고 자명한 이유다. 혁명적 변혁을 통해 새로운 국가권력이 나타날 때는 대체로 폭력과 피 흘림이 동반되기 쉽다. 인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준다.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다. 1960년 4·19 민주혁명도,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도, 1987년 민주시민의 저항도 피 흘림의 고통과 폭력적 충돌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의 대통령 선거는 촛불광장에서 분출된 성숙한 시민혁명의 결과로 이뤄낸 역사 진보의 선물이었다.

세계가 한국 시민의 명예혁명에 주목하면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특히 선진 민주 서방의 언론은 연 1700만 명이 기후의 악조건 속에서도 너무나 평화롭게 진행된 촛불 축제시위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단 한 건의 폭력도 없었다. 정말 비폭력의 잔치였고 평화의 축제였다. 그 광장에는 따뜻하고 튼실한 국민통합이 넘쳐흘렀다. 촛불처럼 스스로 태우면서 남들에게 미래의 빛을 비춰주었다. 그곳에 자기 비움의 희생과 서로 껴안음의 포용이 물결쳤다.

그래서 세계가 감탄했다. 한국에 민주주의를 수출했던 신진 서구사회의 언론이 이제는 자신들이 한국으로부터 명예로운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고 했다. 특히 광장의 자유분방함이 결코 질서의 미덕을 훼손하지 않았다. 한꺼번에 100만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여 여러 시간 자유롭게 축제시위를 신나게 진행하면서도 끝마무리 청소는 어김없이 깨끗하고 정갈했다. 서방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뿌듯하고 놀랐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다. 새 정부는 단순한 새 정권 또는 새 권력의 수준을 넘어 감동적인 새 시대, 새 역사, 새 체제의 모습을 국민의 피부에 와 닿게 보여줘야 한다. 단순한 정권교체 이상으로 새 역사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광장의 그 성숙한 환희를 국민의 삶 속에서 재현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통합의 큰 흐름이 생겨날 수 있다. 튼실하고 따뜻한 국민통합이 이뤄지게 하려면, 지난 6개월 동안 광장에서 울려 퍼졌던 명예시민의 함성에 담긴 메시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무슨 메시지였던가.

한마디로, 국가의 공공성 부재와 시장의 공정성 훼손이 몰고 온 국정농단의 비극을 절대 용인하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국가의 혼은 국가공무원의 공공적 업무 수행에서 드러난다. 공무원이란 헌법 제1조가 엄숙하게 규정한 주권재민의 원칙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일꾼이다. 공공의 이익이란 주권자 국민의 소망을 실현하는 일이다. 그렇기에 책임 있는 국가공무원이 사사로운 이익을 탐한다면 국가 기강이 허물어지게 마련이다. 헌법이 유린되게 마련이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국가 최고 지도층이 국가 공공의 가치를 얼마나 처참하게 훼손했는지 최순실 추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 공공성의 파괴가 공정거래를 생명으로 여겨야 할 시장의 적자(適者)들의 탐욕과 결탁되면 매우 위험한 총체적 국가 위기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에 가슴으로 알게 됐다. 바로 이런 결탁으로 국민은 억울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진실을 세월호 비극을 통해 확인하게 됐다.

따뜻하고 튼실한 국가단합과 국민통합을 진실로 원한다면 국가의 공공성과 시장의 공정성을 총체적으

> 이제 정부는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가면서
> 새 정부의 공공성을 국민과 세계 앞에 당당하게 드러내 보여야 한다.
>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흐뭇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로 세우는 일에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한다. 이 일에 새 정부는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서야 한다. 이른바 적폐 청산 없이는 국가와 시장의 공공성, 공정성을 굳건히 세울 수 없다. 그리고 바람직한 국민대통합을 이룩할 수 없다. 1700만 명의 명예시민이 축제시위를 깨끗한 청소로 마무리했듯이, 앞으로 흐뭇한 국민통합을 통 크게 이뤄내기 위해서도 개혁적 청소를 두려움 없이 해내야 한다. 개혁적 재정비가 튼실하고 따뜻한 대통합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온 국민과 새 정부는 힘을 합쳐 국가적 대청소와 함께 국민적 대통합을 이룩해야 한다.

되돌아보면 지난 72년간의 우리 역사는 이 같은 대청소와 대통합이 함께 이뤄진 일이 없음을 증언해준다. 36년간의 일제 식민통치가 일본의 패전으로 끝장났으나 그것이 해방과 광복의 환희로 이어지지 못했고, 강대국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분단의 고통으로, 동족상잔의 아픔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런 비극적 역사 현실에서 국가 공공성과 시장 공정성은 분단 고착 세력에 의해 은폐되거나 왜곡됐다. 이제 정부는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가면서 새 정부의 공공성을 국민과 세계 앞에 당당하게 드러내 보여야 한다.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흐뭇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나아가 지금 한반도 주변에 감돌고 있는 위험하고 불길한 반(反)평화적 흐름과 조짐을 단호하게 관리해 한반도 평화 세우기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한 세기 훨씬 전의 조선 왕조나 대한제국이 아니다. 패권적 강대국들의 졸(卒)로 시달리기만 했던 '새우'가 아니다. 이제는 세계로부터 찬탄을 받고 있는 명예로운 선진 민주국이다. 대국의 탐욕적 이해 충돌을 평화적으로 균형 잡아나갈 능력을 갖춘 평화 강소국이 됐다.

새 정부는 한반도 주변이 강대국들 간의 이해 충돌 지역에서 벗어나 세계 평화와 번영의 중심부로 발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나는 새 대통령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 확신을 나는 추운 겨울 광장의 촛불에서 온몸으로 느꼈다. 그 광장에서는 폭력과 증오심이 뿌리를 내릴 수 없었다. 어느 날, 젊은 남자들이 차벽을 뛰어넘으려고 했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와, 내려와", "비폭력, 비폭력"을 외쳤다. 그 소리를 듣고 남자들은 조용히 내려왔다. 시위는 다시 명예로운 성숙함을 되찾았다.

이렇듯 즐겁게 양보하는 마음이 광장에 가득 찼기에 그곳에는 이미 아름다운 대통합의 흐름이 조성됐다. 거기에는 계급 간의 절벽도 없었다. 이념 간 증오의 벽도 없었다. 세대 간 불신의 장벽도 없었다. 남녀 간 성차별의 깃발도 없었다. 지역 간 차별의 비웃음도 전혀 없었다. 시민 연대의 몸짓만이 튼실하고 뜨거웠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2017년부터 바라는 국민대통합이 아니겠는가. 새 대통령은 이 같은 대통합의 선두에 서주길 바란다. 우리 모두 단 한순간이라도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진리를 잊지 말기 바란다. 세계와 역사가 찬탄하는 그 성숙한 명예시민만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한완상 | 전 부총리

Weekly
공감
No.403
2017. 05. 15





02 통窓
광장 채웠던 성숙된 힘으로 대통합 시대를 열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다



08 문재인 대통령 시대 개막
촛불 광장에서 청와대 입성까지
문재인 대통령 '194일 고뇌와 환희의 기록'

14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17 국민께 드리는 말씀 분석
'국민' 26회 '역사' 7회 언급… 통합 강조

18 국정 수행
취임 직후 정상외교 시동…
청와대·내각 주요 인사 단행
빠르고 안정적인 국정 수행으로
'준비된 대통령' 면모 과시

22 야 4당 방문 협치 행보
취임 첫날 야당 방문 '통합과 협치' 실천
"야당은 국정의 동반자, 국익 위해 협조요청"

24 각국 정상 & 외신 반응
'압도적 승리, 폭 넓은 지지 모은 준비된 대통령'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긍정적 기대



위클리 공감

표지 이야기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국민통합의 시대를 선언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촛불과 광장의 성숙된 기운이 청와대로 이어지기를 국민은 소망한다. 국회 취임선거 행사 후 청와대로 향하는 길에서 문 대통령이 손을 들어 화답했다. 새 시대를 여는 힘은 대통령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발행일 2017. 05. 15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송수근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044-203-3014
제작협력 (주)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팩컴코리아
구독문의 및 주소변경(수신자부담) 080-906-4480





26 **제19대 대통령선거 결과 종합**
다자대결서 41.1% 득표… 압도적 승리
20대에서 50대까지 대부분 연령대에서 1위

28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온 길 ❶ 유년부터 청년까지**
가난한 피란민 아들, 방황 청소년기, 유치장 사시 합격

32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온 길 ❷ 인권 변호사에서 대통령 당선까지**
약자의 변호인, 대쪽 같은 비서실장
정치 안 하겠다 했지만 정치는 운명이었다

36 **지인들이 말하는 '인간 문재인'**
학창 시절 보이지 않게 팀에 공헌했던 '수비수'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신뢰하는 대통령 될 것"
무슨 얘기든 끝까지 '경청'하는 대통령
"보통 사람이 편하게 사는 세상 만들 것"

38 **국민 11인 제언**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42 **'나라를 나라답게' 새 정부 대표 공약들**
일자리 81만 개 창출, 최저시급 1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치매국가책임제…

48 **공감카툰**

행복공감



50 **스포츠**
2017 FIFA U-20
월드컵 축구 5월 20일 한국 개막

53 **포커스 | 세월호**
여학생 객실 수색 계속, 사람 뼈 추정 유해 발견

54 **여행**
전주의 역사를 한눈에 '남고산성'

57 **사진으로 본 이 주의 역사**
5·18 민주화 운동

58 **문화, 지금**
가짜 말고 진짜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을

60 **문화마당**
이번 주엔 뭐 하고 놀지?

62 **참여공감**

64 **공感**
가슴속엔 불가능한 꿈을

제19대 대통령선거 결과

최종 투표율	문재인 대통령 최종 득표율	사전 투표율
77.2%	41.1%	26.06%
3280만 7908명 투표	1342만 3800표	1107만 2310명

OPEN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위클리 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 〈위클리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스캔하면
공감 블로그를
만납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문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정오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 행사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임기 5년의 대통령직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며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는 다짐은 국민에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던져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권의 경험을 성찰하고 더 발전하겠다고 다짐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새 대통령의 신념은 취임 첫날부터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졌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활짝 열렸다.

이상문 | 위클리 공감 기자



촛불 광장에서 청와대 입성까지

문재인 대통령 '194일 고뇌와 환희의 기록'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취임선서 행사가 열렸다. 2016년 10월 이후 광화문광장을 밝힌 촛불은
문 대통령의 지난 194일간의 고뇌와 환희의 여정을 상징한다. 탄핵정국부터 청와대 입성까지
새 대통령과 함께한 사건들과 모습을 화보로 담아보았다.

청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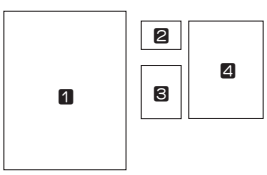

연합


연합



연합

1 2016년 12월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촛불집회를 갖고 있다.
2 2016년 11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해 촛불을 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3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월 14일 서울 광화문광장 촛불집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4 2016년 12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핵 추진과 관련해 '국민이 이깁니다'라는 주제로 호소연설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2016년 10월 29일, 정권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첫 촛불집회가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국민 2만여 명이 모였다. 이후 주말마다 촛불집회가 열렸다. '하야' 여론은 '퇴진'을 거쳐 '탄핵'으로 바뀌었다. 그해 12월 9일 국회에서 대통령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됐다.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은 탄핵정국 내내 국민들과 함께했다. "이것이 나라냐"고 절규한 국민들에게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꿈을 제시했다. "정의가 흐르는 나라",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서 삶을 영위하는 나라"를 외쳤다.

마침내 5월 9일 역사상 첫 보궐선거로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득표율 41.1%(1342만 3,800표)로 대통령이 됐다. 이튿날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침 일찍 국립서울현충원에 참배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 행사를 갖고 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화려한 취임행사도, 외교사절도, 축하공연도 없는 조촐한 취임선서 행사이었지만

연합


선거벽보주의문
1 문재인
2 홍준표
3 안철수
4 유승
8 장성민
99% 국민에게 희망을
9 이재오
개헌 대통령
10 김선동
이제는 세상을 바꾸자
11. 남재준
나는 대한민국이다!
12 이
통일이 답이다

연합



연합



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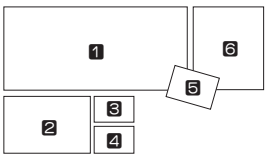






연합

1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 사진
2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제19대 대통령 후보자 충청권역 순회투표장에 입장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3 지난 4월 6일 전남 목포신항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인양된 세월호 현장을 둘러본 뒤 목포신항 담장에 노란 리본을 매달았다.
4 4월 7일 경기 평택시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 대공방어대에서 발칸포 훈련을 참관한 뒤 병사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5 2016년 11월 28일 대전 유성구 충남대 인근 커피숍에서 시국대화를 마치고서 셀카를 찍고 있다.
6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월 3일 거제시 거붕백병원을 방문해 조선소 크레인 전도 사고로 숨진 삼성중공업 노동자의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축전이 쏟아졌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담아 경건하게 치러졌다.

취임선서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국군 교향악단의 연주 팡파르에 맞춰 입장해 내빈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다. 애국가를 제창하는 등 국민의례를 하고 난 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묵념을 할 때 문 대통령은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묵념을 마친 문 대통령은 연단으로 나와 오른손을 들어 올려 취임선서를 했다. 문 대통령은 선서를 마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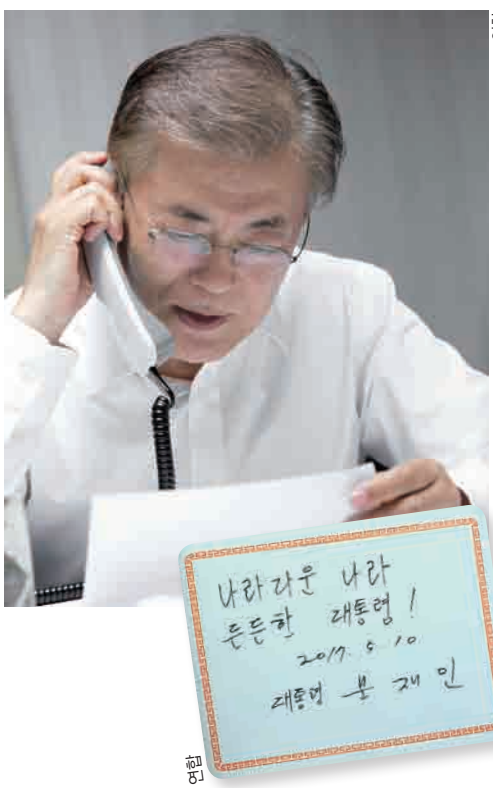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로 시작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은 소통과 국민대통합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권위주의 문화를 청산하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 지역과 계층은 물론 이념과 세대갈등을 뛰어넘는 통합의 새시대를 열겠다는 각오가 오롯이 담겼다.



연합


연합



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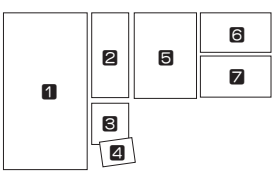

연합



연합


뉴시스

1 취임 첫날인 5월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와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비서실장, 경호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2 5월 11일 신임 수석·비서관들과 청와대 본관을 나와 차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3 5월 10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사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다.
4 현충탑에 참배 후 방명록에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이라고 썼다.
5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 참배하고 있다.
6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국회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7 5월 10일 취임선서 행사가 열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광화문 대통령이 되어 국민과 소탈하게 만나겠다는 신념은 국회에서 청와대로 이동하는 전용차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창을 열어 '대통령 문재인'을 연호하는 환영인파에 손을 흔들어 화답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로 이동하던 중에 청와대 앞 분수대 삼거리에서 열린 주민 환영행사에 참석했다. 오후 1시 10분쯤 문 대통령이 모습을 보이자 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던 청운효자·삼청·사직동 주민 200여 명이 환호를 보냈다. 주민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꽃다발과 함께 '훈민정음 제자해'를 전달했다. 청운효자동 일대에서 태어난 세종대왕처럼 국정을 운영해달라는 의미다. 주민들은 문 대통령을 향해 "축하합니다", "주민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등 축하인사를 건넸다. 주민들의 환호에 화답한 문 대통령은 오후 1시 16분쯤 다시 경호차량에 탑승해 청와대에 입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업무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장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숱한 좌절과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대들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나라입니다. 또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함께 선거를 치른 후보들께 감사의 말씀과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이제 치열했던 경쟁의 순간을 뒤로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몇 달 우리는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보냈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러웠지만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앞에서도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승화시켜 마침내 오늘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국민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고른 지지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우선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안보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주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

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동시에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선거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졌습니다.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 불행한 역사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습니다.

>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5월 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 함께해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통합' '소통' '개혁'의 광화문 대통령 시대 열다

'국민' 26회 '역사' 7회 언급… 통합 강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은 짧았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담았다. 약 13분, 3156자.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사에 비해 가장 적은 분량이었다. 그럼에도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 전반이 압축적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을 강조하며 새 시대의 문을 열었다.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34차례 나온 '대통령'이었다. 다음으로 26차례 언급한 '국민'을 비롯해 '대한민국·나라'(10회), '새로운·역사'(7회), '대화'(4회), '소통·갈등'(3회), '통합·공정·동반자'(2회) 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통합'이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포한 문 대통령은 이념·지역·세대를 초월한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선거를 치른 후보들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가야 할 동반자'로 규정하고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다"며 지역주의 극복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취임 직후 야 4당 지도부를 찾아가 통합형 인사를 단행하는 실천적 모습에서도 잘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소통'에도 방점을 뒀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 "(야당과)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고 말한 대목에 잘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소통 의지를 '광화문 대통령'에 함축해 표현했다. '광화문'은 이전 취임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단어로,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굳은 결의를 엿볼 수 있는 단어다. 탄핵 정국을 주도한 광화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마지막 유세지로 선정했을 만큼 상징적인 곳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개혁'을 예고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솔선수범할 것을 알렸다. 또 "재벌 개혁에 앞장서겠다. 새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란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해 강력한 개혁 의지를 시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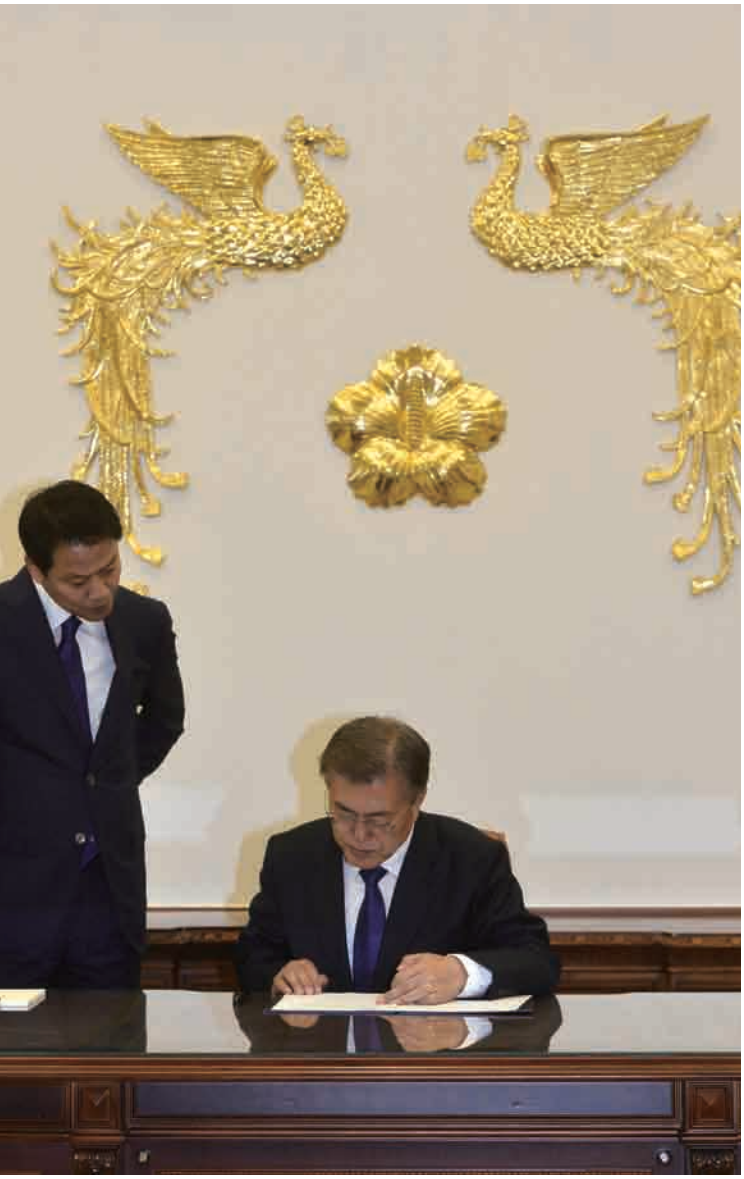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



취임 직후 정상외교 시동… 청와대·내각 주요 인사 단행

빠르고 안정적인 국정 수행으로 '준비된 대통령' 면모 과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 5월 10일 오전 8시 9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187조 1항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하자마자 대통령으로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임종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제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을 결재하고 있다.

'준비된 대통령'의 보폭은 크고도 빨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즉시 제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한데 이어 청와대 조직개편 및 국무총리 후보자 등 주요 인사를 발표했다. 취임 사흘째인 12일에는 첫 민생행보로 인천 영종도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근로자를 만났다. 미·중·일 정상과 연쇄접촉을 통해 정상외교를 본격 시동,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뚜렷이 했다. 세계 각국 정상에게서 대통령 당선 축하 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 문제의 위중함을 감안, 정상외교에 즉시 나섰다.

문 대통령은 5월 10일 오후 10시 30분부터 30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해외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당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주변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상황 속에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동맹관계"라며 "문 대통령이 조기 방미해 한미정상회담을 갖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도발 억제와 핵문제 해결에 대해 여러 안보 사안 중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가장 빠른 시일 내 특사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5월 11일 정오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40여 분간 통화했다. 중국 국가주석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먼저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한중관계 전반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통화 중 한국과 중국의 갈등 요인인 사드 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잘 안다"며 "서로 이해를 높여가며 양국 간 소통이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 "자국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 반대하고 있다"고 중국의 입장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 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위).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전격 방문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는 슬로건으로, 일자리 현장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출국 준비를 하던 여행객들은 문 대통령의 깜짝 등장에 환호로 화답했다(아래).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특사를 파견하기로 하고 하루빨리 양국 정상이 만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같은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25분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국내에서는 한일 합의에 대해 신중하다"며 "양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역사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건 점을 염두에 두고 "한일 합의는 양국에서 약속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 ·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에는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도 "일본과 좋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빠른 시일 안에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군통수권을 행사했다. 문 대통령은 오전 8시 10분 서울 홍은동 사저에서 이순진 합참의장에게 전화보고를 받고 "대통령으로서 우리 군의 역량을 믿는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합참의장을 비롯한 우리 장병들은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9시 20분쯤 홍은동 사저를 나선 문 대통령은 주민 환송행사에 참석했다. 사저 앞에는 주민과 지지자 약 500여 명이 모여 문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배웅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팀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경호팀을 격려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60여 명과 함께 현충원을 참배했다. 문 대통령은 방명록에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 2017.5.10.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남겼다.

같은날 취임 후 첫 업무지시는 일자리 공약 현실화였다. 문 대통령은 5월 10일 오후 3시 30분 표지를 포함해 4장 정도 분량인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을 한 장씩 넘기면서 서류를 읽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제1호 업무지시로 경제부총리에게 당면한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수립해 보고토록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비서실에 일자리를 전담하는 수석을 둬 관련 업무를 챙길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업무지시 서류에 사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사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왼쪽).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참모진과 오찬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조국 민정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송인배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일정총괄팀장, 이정도 총무비서관, 조현옥 인사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국무총리 내정자 지명과 청와대 직제 개편 등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조직과 인선작업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5월 10일 오후 2시 45분 무렵 새 정부의 인선을 직접 발표하는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낙연 전남도지사,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명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종석 전 의원, 경호실장에 주영훈 전 경호실 안전본부장을 임명했다.

5월 11일 오전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청와대 인선자를 발표했다.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사수석에 조현옥 선대위 성평등본부 부본부장, 국민소통수석에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을 각각 임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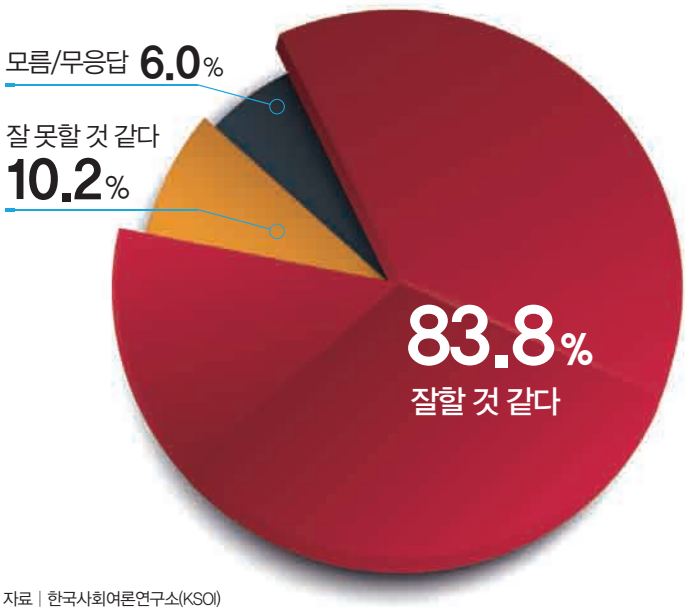
문 대통령은 이날 인선이 공개된 참모들과 함께 청와대 경내에서 한 시간가량 오찬과 차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수석비서관들과 원형테이블에 함께 앉아 식사를 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역할을 승낙해줘서 감사하다"며 "남아 있는 일이 첩첩산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 홍은동 사저에서 출퇴근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대변인을 지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관저가 아직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관저 시설이 정비될 때까지 홍은동 사저에 머물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국민 83.8%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잘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국정을 수행하는 데 국민들의 기대감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대선 다음 날인 5월 10일 성인 104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0%)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대감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3.8%가 '잘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매우 잘할 것 같다'는 35.3%, '어느 정도 잘할 것 같다'는 48.5%였다. '잘 못할 것 같다'는 10.2%를 차지했다.



자료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문재인 대통령, 정부 인선 및 청와대 직제 개편
비서실 정책아젠다 중심 개편… 정책실장 복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 및 새 정부를 이끌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

취임 첫날인 5월 10일 오후 2시 30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직접 국무총리 후보자 등 새 정부 첫 인사를 직접 발표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낙연 전남지사를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지사가 호남 4선 의원을 지내면서 정치적 경험이 풍부하고, 전남도지사로 안정적인 행정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을 높이 샀다.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서 후보자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 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순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킬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훈 국정원장,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인선안을 직접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장에는 임종석 전 의원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젊은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청와대 참모들과 격의 없고 열정적으로 소통하는 청와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경호실장에는 주영훈 전 경호실 안전본부장을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둘째 날에 일부 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 먼저 새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수석이 법에 대한 폭 넓은 지식과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의 인권 중심 국정 철학을 뒷받침할 만한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수석에는 조현옥 선대위 성평등본부 부본부장, 국민소통수석에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을 임명했다. 총무비서관에는 이정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 국무조정실장에는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춘추관장에는 권혁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을 임명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조직개편안이 발표됐다. 대통령비서실은 현행 10수석비서관 체계에서 8수석 2보좌관 체계로 전환됐다.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장(장관급)을 복원해 국가정책아젠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일자리수석 신설, 국가안보실 기능 강화

대통령비서실장 직속에는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이, 정책실장 소속에는 일자리·경제·사회수석 및 경제·과학기술보좌관이 배치됐다. 정책실장 소속의 차관급 경제보좌관과 과학기술보좌관은 각각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과 국가과학기술자문위 간사위원을 겸한다. 아울러 사회혁신수석과 국민소통수석이 신설됐다.

또한 비서실장 직속으로 재정기획관을 둬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재원 배분을 기획·점검하게 했다. 이외에 대통령이 강조해온 정책아젠다와 관련한 주택도시비서관, 통상비서관, 사회적경제비서관, 지방자치비서관, 균형발전비서관이 신설됐다.

급박한 외교·안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안보실 기능도 강화했다. 기존 대통령비서실에서 담당하던 외교·국방·통일 정책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했고, 안보실장이 남북관계, 외교 현안, 국방 전력 등 포괄적 안보 이슈를 관리한다.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운영된 정책실장을 다시 둬 정책아젠다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도록했다는 점이다.

둘째, 비서실을 개별부처 대응에서 정책아젠다 중심으로 개편했다는 점이다.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국정 핵심 아젠다에 대한 추진동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소통·통합 혁신이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적극 이행하고자 사회혁신수석 및 국민소통수석(구 홍보수석 개념)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이밖에 다양한 국정현안과 과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특정 과제 수행을 담당하는 특별보좌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취임 첫날 야당 방문 '통합과 협치' 실천

"야당은 국정의 동반자, 국익 위해 협조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첫 행보로 현충원을 참배한데 이어 곧바로 야 4당을 방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소통과 협치를 요청했다. 대통령이 취임 첫 날 야당을 방문한 것은 전례가 없던 일로 소통과 통합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자유한국당이었다. 선거 결과 2위를 기록한 홍준표 후보와 선거 기간 내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정당이다. 문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앞으로 국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당과 함께 소통하고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겠다"며 "제1야당인 만큼 간곡히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미관계와 안보 문제에서 자유한국당과 함께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안보에 관한 사안은 야당에 늘 협조를 구하고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우택 권한대행은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하실 때보다 우리가 더 강한 야당이 될지 모른다"며 "관용의 정치와 소통의 정치를 베풀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남북관계 및 안보 문제, 한미동맹 문제는 자유한국당에서 협력해준다면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김대중·노무현정부 10년과 이명박·박근혜정부 10년의 20년 전체를 다 놓고 성찰하는 자세로 국정을 펼쳐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당선일 첫 날 일정으로 야 4당을 방문해 정국운영 협조를 당부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개혁과 통합은 우리 모두의 목표"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 도착,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박지원 대표를 만났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뿌리는 같은 정당"이라며 "국익을 위한 외교와 안보에 잘 협력해나가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가 정권교체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저와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마음과 개혁, 통합이라는 의미에서 서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을 안다"고 확인했다.

선거운동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서 '문모닝'으로 불렸던 박지원 대표는 "오늘 아침은 굿모닝으로 시작한다"며 문 대통령을 맞았다. 박 대표는 "10년 만에 문 대통령에 의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에 큰 의미를 둔다"고 말하고 "협력에 방점을 두되 야당이기에 견제할 것은 견제하면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한테 상처받은 국민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경험과 경륜을 갖고 선거 과정에서 좋은 공약을 많이 해줬다"며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국민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국민통합, 협치로 나아가서 변화와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개혁도 해주고 경제도 민생도 잘 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곧이어 방문한 바른정당에서는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이 대표실 문 앞에 나와 문 대통령을 맞이했다. 바른정당에서는 문 대통령과 유승민 후보가 대선 직후에 나눈 통화 이야기가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에게 "어젯밤 유 후보와 축하와 위로를 주고받는 통화를 했다"고 전하고 "(유 후보와 바른정당이) 보수가 나아갈 길을 잘 제시해줬다고 생각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주 권한대행은 "보수정당에 속해 있다가 탄핵에 찬성하며 분당이 됐지만, 선거 과정에서 많은 서러움을 받았다"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바른정당이 정치권에 희망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그런 희망을 키워가는 정치를 계속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네 번째 방문지인 정의당에서 문 대통령은 야권연대 경험 등을 언급





하며 역시 국정 협조를 부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당선은 촛불의 승리, 온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당을 찾아준 첫 대통령이라 인상적인 일이며,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문 대통령이 원상회복시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방문이)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례적인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5년 내내 끊임없이 소통하는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과 국민과 함께 소주 한잔 하는 대통령 보고파"

노 원내대표는 또 "많은 국민이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고 외쳤는데 5년 후 '이게 나라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임기를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간 야권공조라는 이름으로 최대한 협력해왔고 이제 입지가 바뀌긴 했으나 그 정신은 20대 국회 내내 견지될 것으로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의당도 심상정 후보도 최선을 다했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심 후보와 어젯밤 위로와 축하를 나누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의당이 이번에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정의당의 가치와 정책 지향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는 충분히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미래의 희망이 될 것이라 여긴다"고 위로했다. 노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야당 정치인과도 소주 한 잔 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할 것"이라며 "인간의 체온을 국민들이 느끼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야 4당 방문에 이어 국회의장실을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 양승태 대법원장, 황교안 국무총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각 부 요인을 한꺼번에 만나 환담했다.

정세균 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입법 및 정책과제〉라는 책을 선물했다. 새 정부가 당면할 현안과 과제를 정리한 숙제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전에 야당 지도부를 방문했는데 국회를 더 존중하고 야당과 더 빈번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역대 정권을 성찰해보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나 대통령의 불행한 모습은 헌법에 정해진 삼권 분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면서 "대법원과 헌재 등 사법부 독립도 더욱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 위클리 공감 기자

외신 '압도적 승리, 폭 넓은 지지 모은 준비된 대통령'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긍정적 기대

해외 정상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협력을 희망하는 내용도 빠지지 않았다. 외신들은 문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국의 정치 판도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각국에 알렸다. 특히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높이 사고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변화에 주목하며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신속히 타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받은 해외 정상 전화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5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축하 전화를 걸어 한미 정상은 30여 분간 통화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들의 선택에 경의를 표한다"며 당선 축하의 뜻을 전하고 "북한 핵문제는 어렵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을 미국에 공식 초청할 의사를 비쳤다. "(방미 시) 해외 정상으로 충분한 예우를 갖춰 환영하겠다"고 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은 "해외 정상 중 첫 축하 전화를 받아 기쁘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에 앞서 미국은 5월 9일(현지 시간)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평화롭고 민주적인 권력 이양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미·중·일 정상 "한국은 중요한 이웃, 협력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받은 축전은 중국발이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5월 10일 축전에서 "한중 양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임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수교 25주년 이래 쌍방의 공동 노력으로 양국 관계가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발전해왔고 각 분야에서 교류 협력 성과가 두드러졌다"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계속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 주석은 11일에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40여 분간 통화를 이어갔다. 중국 국가주석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정상은 북핵문제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나눴으며 이른 시일 내 특사를 교환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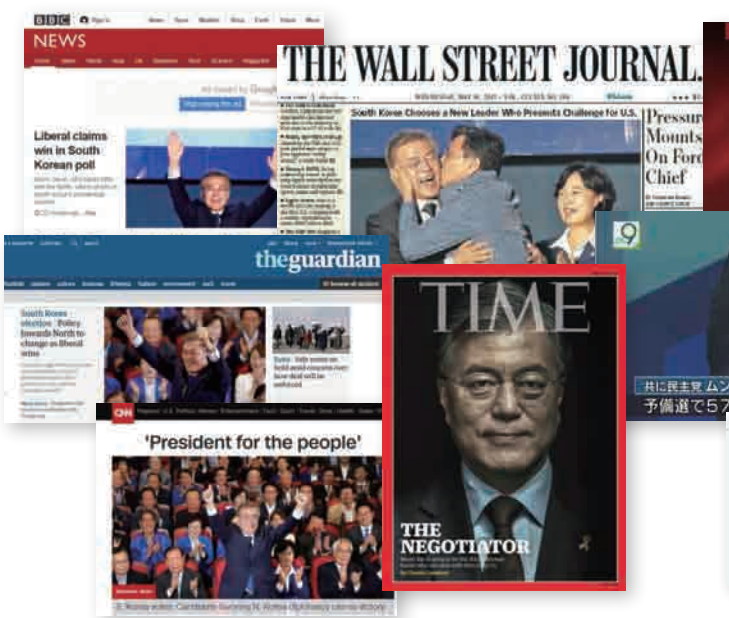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5월 10일 외무성을 통해 "한일 양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손을 잡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폭넓은 분야에서 발전시켜가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북한 문제를 비롯해 한일 양국이 대응해야 하는 많은 공통 과제에 직면해 있어 양국이 협력하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아베 총리는 11일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거듭 당선을 축하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논의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한국과의 건설적 관계를 높이 평가한다"며 "여러 분야에 걸친 양자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 위한 공동 작업을 추진하고 국제 현안 해결 노력에서 공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한국과 독일 양국의 우호와 신뢰를 강화하길 희망한다"며 "7월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을 손님으로 맞게 돼 기쁘다"고 당선 축하의 뜻을 전했다.

대만 차이잉원 총통은 "미래 한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영도 하에 국민복지가 더욱 증진되고 우호적인 기초 하에 서로 협력을 강화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과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해 협력해가기를 기대한다"며 "캐나다와 한국은 G20, APEC, OECD의 강력한 파트너로서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SNS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문재인 후보의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길 바란다"는 글을 한국어와 영어로 트위터에 게재했다. 멕시코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도 트위터로 "멕시코는 신임 문재인 대통령의 동료로서 유엔, G20, APEC, MIKTA 등 국제무대에서 대화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민주주의 회복… 변화 갈망 유권자 지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소식은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전해졌다. 주요 외신들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당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외신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 개선과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주목했다.

AP통신은 문 대통령의 당선을 '압도적 승리'로 표현하며 "한국이 훼손됐던 민주주의를 회복할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CNN은 "탄핵 스캔들 속에 한국 국민은 문 대통령을 깨끗한 후보로 판단했다"며 당선 요인을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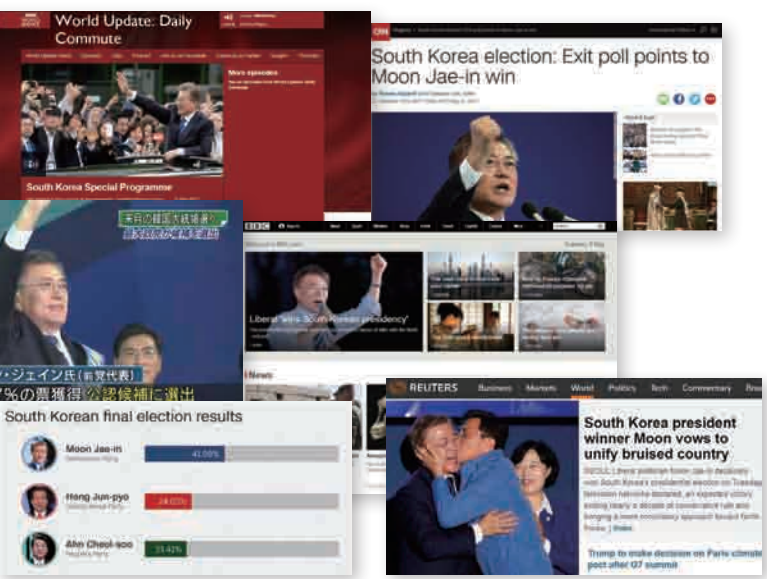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힘이 더 강한 동맹국과 주변국을 상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길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문 대통령이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고,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은 민중의 힘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일깨워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줬다"면서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가 반부패 공약을 내세운 전직 인권 변호사인 문 대통령을 띄웠다"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높게 평가했다.

또 마이니치신문은 문 대통령에 대해 "스스로 과도한 진지함과 결벽증이 단점이라고 분석했을 정도로 고지식하고 착실하다"고 말했고, NHK는 "노무현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정치 경험을 내세우며 준비된 대통령을 강조해 폭 넓은 지지를 모았다"고 소개했다. 르몽드는 대선 과정에서 "시끌시끌하거나 비열한 전법 없이 본인 이미지에 걸맞은 선거운동을 해왔다"고 문 대통령을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달빛정책(Moonshine)'에 비유하는 표현도 등장하며 변화를 예측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성을 빗대 '햇볕정책'을 계승한 유화적인 대북 접근을 할 거란 해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달빛정책 시대에 접어들다'라는 기고문에서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햇볕정책과 달리, 문재인 정부의 달빛정책은 더 현실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타임은 당선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아시아판 표지 인물에 선정, '김정은을 상대할 협상가'에 비유해 눈길을 끌며 대북 포용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점쳤고, 뉴욕타임스는 "문재인 정부는 남북 대화와 이산가족 상봉, 경제 교류 재개 등을 추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평양 데탕트 지지자가 한국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전했으며 BBC도 문 대통령을 "북한과 대화하기를 선호하는 인물"이라고 설명하며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축 기조를 주시했다.

외신들은 문 대통령의 재벌 개혁 정책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문 대통령이) 한국 경제를 지배하는 재벌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이들의 불투명한 소유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 것을 공언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 공약은 가족 중심, 부의 세습 등 퇴행적 지배구조를 뜯어 고쳐 한국 경제의 성장 문법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소개했다.



세계 각 나라 외신들의 문재인 대통령 당선 및 취임 관련 보도

"문 대통령, 미국·중국과 협상 진행할 것"

외신은 10일 문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 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워싱턴, 베이징, 도쿄에 가겠다.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주목했다.

AP통신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북한 핵 미사일 개발 야망에 대처하는 것과 연관해 전임자보다 더 유연한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으며, CNN도 "한국의 대북정책이 중대한 개혁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관영매체들은 '사드 문제 협상 가능성'에 집중했다. 인민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중국과 협상하겠다"는 발언을 하자마자 자국에 신속히 보도하며 한중 관계 개선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

다자대결서 41.1% 득표… 압도적 승리
20대에서 50대까지 대부분 연령대에서 1위

지난 5월 9일 헌정 사상 첫 보궐선거로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1%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77.2%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문재인 후보는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다음 날인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문재인 후보가 득표율 41.1%, 총 1342만 3800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음을 밝혔다. 2위를 기록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557만 951표 차를 벌이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문 대통령은 1987년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로 최다 득표를 얻은 대통령이 됐다.

유권자 4247만 9710명 중 3280만 7908명이 투표에 참여해 총 77.2%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2012년 대선 투표율인 75.8%를 넘어, 1997년 대선 투표율 80.7%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대통령 선거 최초로 사전 투표가 실시됐다. 5월 4일, 5일 이틀간 치러진 사전 투표는 유권자 1107만 2310명이 참여해 투표율 26.06%를 보였다.

사전 투표에 참여한 연령대별 투표 현황을 보면 2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사전 투표에 참여한 20대는 모두 264만 9303명으로 전체 사전 투표자의 23.9%를 차지했다. 이어 60세 이상이 223만 902명이 참여해 20.2%로 나타났다. 50대는 217만 7365명이 참여해 19.7%, 40대는 207만 5647명이 참여해 18.7%의 비율을 보였다. 30대는 193만 903명이 참여해 17.4% 비중을 차지해 전체 연령에서 가장 낮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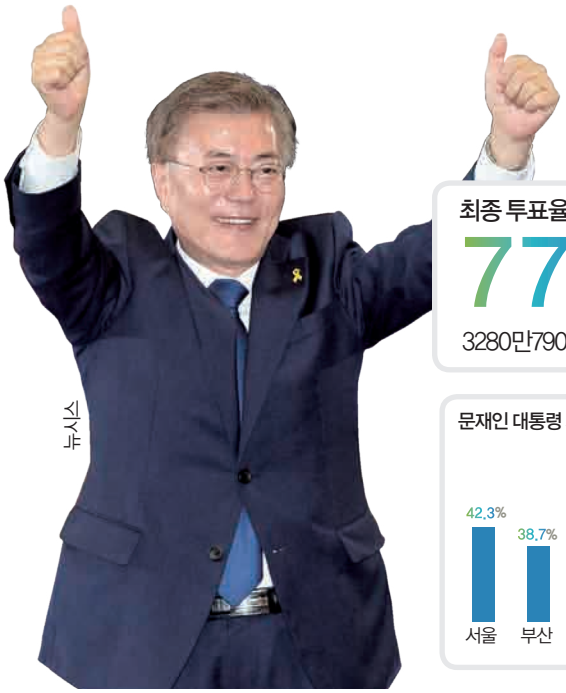
20대 사전 투표 참여율 23.9%로 최고

여행객이 붐비는 역과 공항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서는 평균 투표자 수 3157명을 훨씬 웃도는 유권자가 방문했다. 서울역 1만 6604명, 용산역 1만 2926명, 인천공항 1만 8978명이 투표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 투표의 장점이 한껏 발휘됐다.

사전 투표보다 앞서 실시한 대선 재외투표는 역대 최다 인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재외유권자 29만 4633명 중 22만 1981명이 참여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5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선거상황실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두 손을 들어 화답하고 있다.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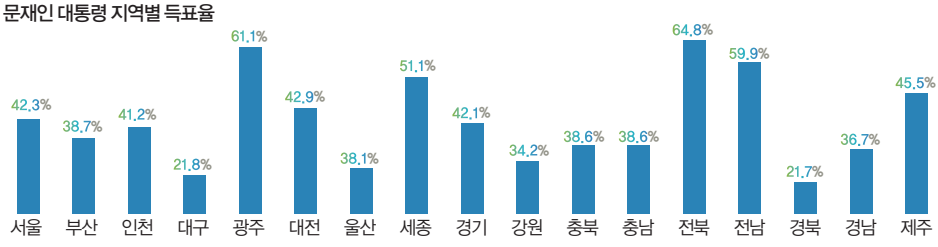
제19대 대통령선거 결과

최종 투표율
77.2%
3280만7908명 투표

문재인 대통령 최종 득표율
41.1%
1342만 3800표

사전 투표율
26.06%
1107만 2310명

문재인 대통령 지역별 득표율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5.3%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5월 9일 실시한 대통령선거에서도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다. 궐위선거로 치러진 19대 대선은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했다. 그 결과 투표율이 18대 대선 대비 1.4% 상승했다. 지역별 투표율은 광주가 82.0%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세종 80.7%, 울산 79.2%, 전북 79.0%, 전남 78.8%이 이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72.3%였다. 이어 충남 72.4%, 강원 74.3%, 충북 74.8%, 인천 75.5% 순이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인 수 4247만 9710명 중 3280만 7908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무효 13만 5733표, 기권 967만 1802표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득표율 41.1%로 고른 지지를 얻었다. 전국 17개 권역 중 경북·경남·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42.34%(278만 1345표), 부산 38.71%(87만 2126표), 인천 41.20%(74만 7090표), 대구 21.76%(34만 2620표), 광주 61.14%(58만 3847표), 대전 42.93%(40만 4545표), 울산 38.14%(28만 2793표), 세종 51.08%(7만 7767표), 경기 42.08%(331만 9812표), 강원 34.16%(32만 4768표), 충북 38.61%(37만 4806표), 충남 38.62%(47만 6661표), 전북 64.84%(77만 8747표), 전남 59.87%(73만 7921표), 경북 21.73%(36만 9722표), 경남 36.73%(77만 9731표), 제주 45.51%(16만 9493표)의 득표율을 얻었다.

문 대통령은 세대별로도 고른 지지를 받았다. 선거 당일 KBS·MBC·SBS 방송 3사가 공개한 출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문 대통령은 60대 이상을 제외한 20대에서 50대까지 전세대에 걸쳐 득표율 1위를 차지했다.

2위와 격차 557만 951표로 역대 최대

최종 1342만 3800표, 득표율 41.1%를 얻은 문 대통령은 785만 2849표, 득표율 24.0%에 그친 2위 후보를 557만 951표 차로 따돌려 역대 최다 득표 차로 당선됐다.

선거 결과는 투표일을 넘긴 다음 날 10일 새벽 2시쯤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선거일 오후 11시쯤 당선인 윤곽이 드러났다. 대통령 당선이 확실해지자 문 대통령은 서울 광화문광장을 방문해 광장에 모인 지지자들과 당선을 축하하는 시간을 보냈다. 광화문광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을 결코 잊지 않고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했다.

장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취임 첫날 코스피 장중 2323… 사상 최고치 '새 정부 기대감' 고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첫날인 5월 10일,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을 넘었다. 이날 코스피는 개장 직후 2323.22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거 대선 이후 주가 흐름을 보면 대통령 임기 1~2년 차에 코스피 상승률이 높았고 대선 직후에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대선에는 대통령이 바로 취임해 과거보다 정책 시행이 빠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또한 주변국과 대화채널 재개와 내수부양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한 점도 코스피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증시 전문가들은 시장 지향적 성격을 띤 새 정부가 출범한 것에 대한 기대감이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가난한 피란민 아들, 방황 청소년기, 유치장 사시 합격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삶이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의 연탄 배달 리어카를 함께 밀었다. 사춘기 시절에는 경제적 불평등이 주는 세상의 불공평을 깨달으며 방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년기부터 청년기까지 짚어봤다.

지독한 가난. 문재인 대통령의 유년 시절을 관통하는 다섯 글자다.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궁핍했다. 예닐곱 살 당시 문 대통령은 커다란 양동이를 들고 부산의 한 성당에서 긴 줄을 서는 게 일이었다. 성당에서 나눠주던 구호물자를 받기 위해서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데 가난한 형편에 자전거 살 돈도 배울 틈도 없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학창 시절 모습

문 대통령은 1953년 1월 24일, 아버지 문용형과 어머니 강한옥 사이에서 2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경상남도 거제군 허름한 시골 농가에서였다. 그곳은 한국전쟁 중에 자유를 찾아 남으로 온 부모님이 처음 정착한 곳이었다.

이후 가족은 북한 출신 피란민이 많이 살던 부산 영도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영도는 고갈산 아래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비탈진 언덕에 판잣집이 들어선 대표적인 서민 동네였다. 아버지가 호남 이곳저곳으로 장사를 나서면 집안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는 연탄을 배달했다. 어머니가 끄는 연탄 리어카를 뒤에서 미는 일은 장남인 문 대통령의 몫이었다. 좁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다 보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언젠가 삐끗 놓친 리어카가 비탈길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다. 당신의 안전보다 깨진 연탄이 안타까워 발을 구르던 어머니의 모습은 문 대통령에게 아직도 서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가난한 유년 시절, 자립심과 독립심 키워

그러나 가난에 낙담하거나 실망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서 어린 시절 가난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자립심과 독립심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가난이 내게 준 선물이다. '돈이라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지금의 내 가치관은 오히려 가난 때문에 내 속에 자리 잡은 것이다. 아마도 가난을 버티게 한 나의 자존심이었을지 모르겠다. 그런 가치관은 살아오는 동안 큰 도움이 되었다."

1965년, 남항국민학교(현 초등학교)를 졸업한 문 대통령은 경남중학교에 입학했고, 1968년 당시 명문고라 불리던 경남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경남중에 입학하면서 문 대통령은 처음으로 빈부의 격차를 겪었다. 가난한 집안 아이들이 모여 살던 초등학교와는 달리 부유층 자제들이 많이 다니던 경남중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이때 태어나 처음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주는 세상의 불공평함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다소 방황도 했다. 방황하는 사춘기 시절. 그가 집어든 건 책이었다. 닥치는 대로 읽었는데, 학교 도서관 사서를 도와 도서실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과일 정도였다. 소설에서 시작된 책 읽기는 차차 영역을 넓혀 〈사상계〉 같은 사회 비평 잡지에 이르렀다.

경남고에는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지만 공부만 하는 모범생은 아니었다. 운동을 하는 친구들과 어울렸고 문학청년들과도 우정을 쌓아갔다. 술도 먹고 담배도 피웠다. 싸움에 말려 친구들과 의리를 지키려다 정학을 당하기도 했다. 고교 시절 처음 이름 때문에 붙은 '문제아'라는 별명이 나중에는 실제가 되고 말았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아 성적은 늘 좋은 편이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 문 대통령은 역사학을 공부하고 싶었다. 그러나 부모님과 학교의 뜻대로 서울대 상대에 응시해야 했다. 결과는 낙방. 재수 끝에 1972년 경희대학교 법학과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1972년 당시는 유신 선포와 함께 민주주의의 억압이 노골화되던 해다. 유신에 반대하는 대학마다 탱크가 진주할 정도여서 결국 휴교령이 내려졌다. 학생들은 강의실 대신 술집이나 하숙집에 모여 시국을 개탄했다.

1973년 유신 반대 투쟁이 본격화되면서 대학생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개헌 청원 100만 서명운동이 벌어지자 당시 정부는 긴급조

치 1, 4호를 발동했고, 이후 1974년에는 민청학련 사건과 인혁당 사건이 발생했다. 그해 문 대통령은 유신 반대 학내 시위를 주동하다 체포됐지만, 구류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이듬해인 1975년 4월 인혁당 사건 관계자들이 사형을 당했고, 문 대통령은 다음 날 사법 살인에 항의하는 대규모 학내 시위를 주도하다 끝내 구속되고 말았다. 그리고 1975년 석방되자마자 징집 신체검사와 입영통지서를 받고 결국 강제징집을 당했다.

창원 39사단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친 문 대통령은 특전사령부 제1공수 특전여단에 배치된다. 복무 당시 문 대통령은 폭파 과정 최우수, 화생방 최우수 표장을 받았고, 공중낙하, 수중침투, 천리행군, 고급 인명구조 훈련 등을 거뜬히 치러낸 특A급 사병이었다. 상병 때는 북한이 일으킨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에 대한 대응작전에 투입되기도 했다.

제대 후 복학, 이어진 학생운동과 사시 합격

1978년 2월, 문 대통령은 31개월 만기 제대했다. 제대 후 현실은 암담 그 자체였다. 복학의 길은 막혔고 대학 졸업장 없이는 취직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았다. 자신은 고졸로 살아도 좋다는 심정이었지만 평생 고생하신 부모님을 볼 면목은 없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급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은 문 대통령을 사법시험의 길로 이끌었다. 장남으로 집안을 건사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뒤늦게나마 아버지께 한 번이라도 잘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결심 때문이었다.

아버지 49재를 마친 다음 날 문재인은 전라남도 해남 대흥사로 들어가 고시 공부에 매달렸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치열하게 공부한 끝에 1979년 초 사법시험 1차에 합격했다. 다음 해 2차 합격을 목표로 공부에 정진하던 중 10·16 부마항쟁이 일어났다. 곧이어 10·26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이 터져 시대는 격랑에 휩싸였다. 긴급조치가 해제되고 복학 논의가 시작되는 한편, 신군부가 12·12 쿠데타를 일으켜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급변했다.

1980년 학교로 돌아온 문 대통령은 복학생 대표로 '서울의 봄' 한가운데에 섰다. 대규모 시위가 연일 이어졌고 거침없이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러면서도 고시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1980년 4월 학내 시위가 한창이던 속에서 2차 시험을 치렀다.

1980년 5·17 확대 계엄 조치가 발동되면서 경희대 운동권의 핵심이었던 그는 또다시 구속됐다. 이후 5·18 광주항쟁을 앞두고 수많은 학생, 민주인사들이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군사재판에 즉결 회부됐다. 이때 문 대통령은 5월 15일 서울역 앞 시위에서 발생한 경찰 사망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느라 군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채 미결수로 남아 있었다. 결국 '혐의 없음'이 입증됐지만 석방이 차일피일 미뤄져 20여 일 이상을 경찰서 유치장에서 보냈다. 그때 경찰서 유치장에서 사법시험 2차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박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서점가 '문재인 관련 서적' 품절 대란

지금 서점가는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한 서적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얼굴을 표지로 한 2017년 5월 15일 자 '타임 아시아판(Time Asia)'은 이미 품절 대란을 일으켰다. 표지 제목은 '문재인, 김정은을 다룰 협상가'다. 문 대통령과 관련된 주요 서적을 모아봤다.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21세기북스)
2017년 1월 출간된 대담집이다. 정치인 문재인을 만든 기억과 역사, 그가 만든 인권과 정치, 그가 만들 민주주의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의 생생한 육성으로 기록했다. 인터뷰어로 시인 겸 소설가이자 기자인 문형렬이 함께했다. 기억, 동행, 광장, 약속, 행복, 새로운 대한민국 등 6개 주제로 구성했다.

문재인의 운명(가교)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지낸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를 맞아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 비사를 비롯해 30년 동행의 발자취를 기록한 책이다. 문 대통령이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 함께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부터 서거 이후 30여 년 세월의 인연과 그 이면의 이야기를 상세히 기록했다. 만남, 인생, 동행, 운명 등 총 4장으로 구성했다. 정치적 파트너로서뿐만 아니라 친구이자 한 사람의 인간이었던 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운명에서 희망으로: 문재인이 말하고, 심리학자 이나미가 분석하다(다산북스)
가장 최근인 2017년 3월 출간됐다. 문 대통령의 삶과 생각을 심리학자의 시선으로 묻고 분석했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집단 심리,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심리학적 통찰, 새로운 관점에서 '인간 문재인'을 이해하고 판단해볼 수 있는 다양한 단초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심리학자인 이나미 서울대학교 외래 겸임교수가 다양한 주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말을 분석했다.

문재인 스토리: 그 남자, 문재인에 대해 알고 싶은 56가지 이야기(모악)
문재인이라는 사람과 이런저런 인연을 맺었던 이들의 사연을 모은 책이다. 어릴 적 친구, 학교 동창, 군대 동기, 이웃에 살던 사람, 함께 일했던 동료, 사회에서 만난 지인 등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시인 안도현, 함민복, 김민정, 박성우와 소설가 백가흠, 이유, 황현진, 이재은 등이 함께 기획하고 만들었다.



연합

퍼스트레이디 김정숙 여사 비하인드

"최루탄에 쓰러졌을 땐 물수건, 유치장 면회 땐 안개꽃 한 다발… 묵묵한 헌신과 사랑"

문재인 대통령은 사시에 합격한 이듬해인 1981년, 오랜 연인이었던 김정숙 여사와 결혼했다. 김정숙 여사는 서울 숙명여중·고를 거쳐 경희대 성악과를 졸업했다. 경희대 법대를 나온 문 대통령과는 캠퍼스 커플인 셈이다.

1974년 당시 음대 1학년이었던 김 여사는 친구 오빠의 소개로 대학 축제에서 72학번의 문 후보를 만났다. 김 여사는 지난 3월 한 여성지 인터뷰에서 "대학교 1학년 때 친구 오빠가 '과 대표 친구가 하나 있다. 학교 축제나 행사에 안 나오는 사람인데 여자친구 소개시켜주면 나오겠다더라'면서 만나보라고 소개를 해줬다. 알랭 들롱 닮았다고 해서 나갔는데, 아니어서 눈을 내리깔고 그랬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특보'로 불리며 선거기간 내내 지원 활동에 나섰던 김정숙 여사.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대통령 부부로는 최초의 캠퍼스 커플이다. 김 여사는 당시 경희대 성악과 재학 중이었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7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했다.

캠퍼스 커플로 7년 열애 끝 결혼

지인의 소개로 만난 평범한 인연이었지만, 연애 과정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 특히 소개를 받은 이듬해 둘 사이를 탄탄하게 한 결정적 사건이 벌어졌다. 유신 반대시위의 선두에 섰다가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문 대통령을 발견한 김 여사가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며 돌봐줬다. 이후 문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으로 두 번이나 구치소에 수감될 때마다 김정숙 여사는 수시로 면회를 갔다. 문 대통령은 김 여사가 첫 면회 때 안개꽃 한 다발을 가져온 일화를 두고두고 주변에 소개한다.

문 대통령이 군에 입대할 때도 김 여사는 훈련소까지 찾아왔고 제대하는 날에는 부대 앞에서 기다려줬다. 제대 후 사시 준비를 위해 대흥사에 들어간 동안에도 김 여사는 묵묵히 참고 기다렸다.

그렇게 둘은 7년간의 연애 끝에 혼인서약을 했다.

김정숙 여사의 대통령 내조는 대선 기간에 더욱 빛을 발했다. 2016년 추석부터 매주 거르지 않고 홀로 연고도 없는 광주, 호남을 찾아 지역민들과 끈끈한 스킨십을 이어갔다. 올해 들어서는 호남의 섬까지 일일이 다 찾아다녔다. 때문에 '호남특보'라는 별칭까지 얻으며 '현장형 내조'의 대명사로 불렸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하루에 무려 10곳에 달하는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으로 남편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녀의 활약이 호남에 퍼져 있던 반문(문재인) 정서를 해소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호남특보' 활약하며 남편 내조

김 여사는 호남특보로 활약할 당시 인터뷰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호남의 90%가 넘는 분들이 문 후보를 지지했다"면서 "고맙고 죄송한 마음이 컸고, 우리가 부족한 것, 잘못한 것을 직접 듣고 위로해주고 싶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대학 새내기부터 정치인이 될 때까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 대통령을 지켜봐 온 김 여사는 한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깊고 그윽한 눈빛, 그리고 나에 대한 신뢰, 세상을 대하는 원칙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면서 "변한 건 오직 흰 머리카락, 임플란트를 한 치아, 살짝 나온 뱃살"이라면서 웃었다.

둘 사이에는 아들 준용(35) 씨와 딸 다혜(34) 씨가 있다. 건국대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한 준용 씨는 현재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전시회도 열고 대학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딸 다혜 씨는 주부다.

약자의 변호인, 대쪽 같은 비서실장 정치 안 하겠다 했지만 정치는 운명이었다

인간 문재인은 한 번도 대통령을 목표로 살지 않았다. 2012년 총선에 출마하기 전까지는 정치권 입문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정치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그가 역사 무대에 서는 계기가 됐다.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것도 마치 정해진 것처럼 느껴진다. 운명 같은 것이 나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온 것 같다."

–〈문재인의 운명〉 중에서

'정치인 문재인'을 이해하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서 "당신(노 전 대통령)은 운명에서 해방됐지만, 나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됐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결국 노 전 대통령에게서 시작됐음을 인정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시절은 평탄했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매월 봉급을 받게 돼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었다. 연수원의 쟁쟁한 동기들 가운데서도 문 대통령의 성적은 발군이었다. 사법연수원 수료식에서 연수원 성적 차석으로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판사를 지망했다. 그러나 시위 전력이 있어 임용에서 탈락하고 결국 변호사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국내 최대 대형 로펌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 파격적인 보수에 특전이 따르는 조건이었지만 제안을 뿌리치고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갔다. 억울한 사람을 대변하는 변호인으로 살고 싶었고, 홀로 계신 노모를 모셔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이때의 귀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운명적인 만남을 이어주는 다리가 됐다.





부산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던 시절 어머니와 함께(왼쪽).
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사무실 간판이 함께 찍힌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사무실은 부산 부민동 법원 앞 건물로 '변호사 문재인'과 '변호사 노무현' 간판이 눈에 띈다(오른쪽). 뉴시스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첫 만남

노무현과 문재인. 처음에는 동업자로 만났지만 차츰 삶의 동반자로 변해갔다. '깨끗한 변호사'가 되기로 의기투합한 두 사람은 선후배 또는 친구처럼 함께 일하며 신뢰를 쌓아나갔다. 각종 인권, 시국, 노동 사건을 기꺼이 맡다 보니 두 사람은 자연스레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었다.

두 사람의 법률사무소는 부산은 물론 인근 울산·창원·거제 등을 망라하는 지역 노동인권 사건을 총괄하는 센터처럼 돼갔다. 재야운동에도 깊숙이 발을 들여놓게 됐다. 이때 문 대통령은 부산·경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창립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부산 NCC 인권위원을 맡았다. 부산 YMCA 이사와 노동자를 위한 연대 대표도 맡았다. 1985년에는 부산민주시민협의회(약칭 부민협)를 창립하고, 1987년에는 6월 항쟁의 주역이 된 부산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약칭 부산국본)를 만들어 상임집행위원을 맡았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의 운명〉에서 노무현 변호사와 함께한 6월 항쟁의 기억을 살아온 동안 가장 보람찬 일이었다고 술회했다.

참여정부(2003.2.25~2008.2.24)의 시작과 끝에는 문 대통령이 있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자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 두 차례와 시민사회수석을 거쳐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재임했다.

당시 문 대통령의 청와대 생활은 누구보다도 대쪽 같았다. 고위 공직자의 관행이었던 특혜를 철저하게 내려놨다. 업무시간 외엔 직접

차를 몰았으며, 방이 따로 없는 대중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비행기나 기차는 늘 일반석을 이용했다. 노 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국정 전반을 항상 보좌했던 1년 동안 무려 10개의 이가 빠져버렸다. 원인은 과로였다.

과로로 건강이 상한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사퇴하고 훌쩍 히말라야로 트레킹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휴식은 길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것이다. 곧바로 귀국해 법적 대응 전반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후 탄핵 재판이 끝나고 시민사회수석으로 청와대에 복귀했다가 2005년 1월 다시 민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7년 3월,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 된다. 이때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으로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미 FTA라는 국가 중대 협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국정 전반에 걸쳐 축적된 풍부한 경험은 다양한 정책 조율 감각과 국정운영에 대한 균형감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문 대통령의 지난 삶은 가장 정치적이었지만 가장 비정치적이었다. 정치인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정치가 올바르게 나아가야 할 길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정치를 하기보다 보통시민으로서 바른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지난 삶은 '운명'이 돼 그를 정치판으로 불러들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의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절대 정치는 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는 그를 정치인의 길로 이끌었다. 사람들은 30년 동지를 잃은 아픔 속에서도 절제력과 의연함을 보여준 '상주 문재인'에 주목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 추모 열기에 힘입어 친노 진영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망론'이 일었고, 2012년 4월 부산 사상구에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마침내 정치 입문과 대선 도전

정치 신인이 부산에서 출마해 당선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총선 승리 두 달 후, 당시 문 의원은 마침내 18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정치 신인으로 현실 정치인이 된 지 두 달 만에 정치인 최고의 목표인 대통령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18대 대선 결과, 득표수 1469만 표, 득표율 48.02%로 아쉽게 정권교체에 실패했다. 문재인이 득표한 1400여만 표, 득표율 48%는 야권 대선후보의 역대 최고 득표수, 득표율이었다.

대선에서 패배한 후 깊은 반성과 성찰, 침잠의 시간을 보낸 문 대통령은 2013년, 저서 〈1219 끝이 시작이다〉를 펴내면서 정치활동을 재

뉴시스




"노동현장의 人權유린 참을수없어…"
참다운 근로자의 동반자 자청 정의실현 앞장
人權변호사 文在寅씨
60개民主노조 탄생의 산파
'경제성장주역들 生存허덕 가슴아파

문재인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모습(왼쪽). 1980년대 한 일간지에 실린 '인권 변호사' 문재인 관련기사

개했다.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사건, NLL 포기 논란 등이 그를 세상 밖으로 다시 이끌었다.

2014년 12월 29일 문 대통령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다. 당을 혁신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총선은 말할 것도 없고 다음 정권교체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다. 문재인은 당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여의도 정치에 익숙한 사람들 대부분이 당대표 출마를 만류했다. 자칫 실패하면 정치적으로 사망선고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문 대통령 스스로 죽을 고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는 출마 선언 시 세 번의 죽을 고비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정확하게 예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망설이지 않았다. 야권 기득권에 안주한 당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누가 대선후보가 된다고 해도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독배가 될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당을 혁신해야 했다.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염원을 실천해야 한다고 믿었다.

마침내 2015년 2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대권 재도전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과 끊임없는 싸움, 자신을 뒤흔드는 숱한 분란과 내홍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당 혁신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맞섰다. 당을 흔드는 기득권의 분당과 탈당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끝내 당 혁신에 성공했다.

혁신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공천 룰을 만들고, 당의 문을 활짝 열어 10만 온라인 당원을 입당시켜 당의 내실을 다졌다.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 낡은 당 문화를 젊고 역동적으로 쇄신했다. 이후 당대표를 내려놓고 백의종군으로 전국을 누벼 마침내 2016년 총선에서 제1당을 일궈냈다.



참여정부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한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당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선포

정치 입문 6년. 그동안 두 번의 대선 도전장을 냈다. 이번 19대 대선에 도전하면서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운명은 없다. 숙명이다"라는 말을 되뇌었다. 대선 재수생인 그는 "지난 대선보다 훨씬 절박해졌다"면서 "나라에 큰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다"고 한다. 지난 정권 시절 발생한 세월호 참사, 국정농단 사건이 대선 재도전의 확실한 명분이 됐다는 것이다.

촛불혁명, 불의에 일어선 정의로운 국민이 마침내 권력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정권교체, 적폐청산의 뜨거운 여망을 현실로 일구는 일은 결국 정치의 몫이다. 그는 기꺼이 국민의 촛불이 되기로 결심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을 국민의 도구로 써달라고 간청했다. 지금까지 국민을 도구로 권력을 누려왔던 특권정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정권교체의 삽이 되고, 적폐청산의 벽을 깨는 망치가 되고, 정의로운 반석을 다지는 곡괭이가 되겠다는 것이다.

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을 혼자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아무리 좋은 선의도 혼자 하면 독선이 된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정의로운 통합을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그리고 마침내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온 길



1953
1월 24일 아버지 문용형
어머니 강한옥 사이에서
둘째(2남 3녀)로 출생



1975
군부독재 반대
시위로 투옥





1982
변호사 개업

1981
김정숙 여사와
결혼



1980
계엄령 위반으로 투옥,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1991
부산·경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대표

2003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2004년 2월 사퇴.
노 전 대통령 탄핵안
통과 직후 법률 대리인)

2004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
수석비서관



2007
대통령
비서실장

2006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보

2005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2009
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의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2010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2012
제19대
국회의원(부산 사상) 당선

2015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2012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후보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당선

2015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2016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2017

시사N

일문일답으로 본 문재인 대통령

좌우명은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당장은 손해인 듯해도 결국은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

취미는
등산. 세 번의 히말라야 트레킹은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꼭 가보고 싶은 곳은
함경남도 흥남. 6 · 25 때 피난 나오기 전에 부모님이 사셨던 함경남도 흥남을 꼭 한 번 가보고 싶다.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은
회와 해산물을 좋아하고 특별히 가리는 음식은 없다.

신체 비밀은
임플란트와 발가락. 참여정부 시절 치아가 10개나 빠져서 임플란트를 했다. 원래 이가 몇 개 남지 않아 말할 때 조금 불편하다. 그리고 발가락이 정말 못생겼다.
지난 대선과 총선 때 전국을 돌아다니느라 굳은살이 생기고 발톱이 빠져서 더 엉망이 됐다.

한 달 독서량은
예전엔 10권 정도였는데 최근엔 바빠서 2~3권.

최근에 읽은 책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 저성장 시대, 기적의 생존 전략〉(김현철 지음).

좋아하는 노래는
'꿈꾸는 백마강'.

주량과 술버릇은
주량은 소주 1병이고 특별한 술버릇은 없는 편.

담배는
2004년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네팔로 히말라야 트레킹을 갔을 때 끊었다.

좋아하는 한자성어는
재조산하(再造山河).
(임진왜란 당시 실의에 빠져 있던 서애 류성룡에게 충무공 이순신이 적어준 글귀로 '나라를 다시 만든다'는 뜻.)

자신의 외모에 점수를 준다면
대학 시절 프랑스 영화배우인 알랭 들롱을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 덕분에 소개팅에서 아내를 만났다.

한 달 용돈은
책 몇 권 사고 사람들 만날 때 밥값이나 술값을 낼 수 있는 정도.

반려동물의 이름은
풍산개는 '마루'와 '깜', 고양이는 '찡찡이'와 '뭉치'.

가장 아끼는 물건은
법무법인 '부산'을 개업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업 선물로 보내준 괘종시계('증 노무현'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음).

스트레스 해소법은
산책. 밭일을 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마당의 풀을 뽑는 단순노동도 한다.

가장 후회되는 일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잘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고 싶은 때는
선친이 살아 계셨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 큰아들이 고시에 합격한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

약속 시간에 얼마나 기다릴 수 있나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마냥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


뉴시스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것은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잘나가는 사람이 약하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다산 정약용 선생. 민본주의와 실용주의를 이끌어낸 분이다.

따르고 싶은 현대 정치인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진보적이면서도 통합적인 리더십이 존경스럽다.

가장 부러운 사람은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연예인은
이은미, 송강호.

감명 깊게 본 영화는
'광해, 왕이 된 남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대책 없이 울어본 것도 처음이다. 영화 곳곳에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 많아 감정 수습이 안 됐다. 백성의 삶을 외면하는 기득권 세력을 비판하고 백성을 위한 진짜 왕이 되려는 하선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학창 시절 보이지 않게 팀에 공헌했던 '수비수'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신뢰하는 대통령 될 것"



송정규
경남중·고등학교 25회 동기회 회장
(전 한국도선사협회 회장)

"눈이 굉장히 크고 부리부리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1971년 부산 경남고를 졸업했다. 피란민이 모여 살던 부산 영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문 대통령은 부산 지역 최고 명문인 경남중과 경남고에 다녔다. 송정규 경남중·고등학교 25회 동기회 회장은 문 대통령과 고교 2, 3학년을 함께 지냈다. 학창 시절의 문 대통령에 대해 송 회장은 "보는 사람에 따라 첫인상이 다른데 미남이라기보다는 호감이 가는 얼굴이었다"고 기억했다. 특히 크고 맑은 눈과 짙은 눈썹이 기억에 남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다양한 학생과 두루 친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송 회장 역시 "재인이가 공부만 하는 성격은 아니었고, 불량한 학생부터 엘리트까지 가깝게 지냈다"고 전했다. 또 "원만한 성격이어서 친구들과 말다툼을 하거나 주먹다짐을 하는 일은 없었다"며 "두루두루 잘 지내는 성격이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학창 시절 장래 희망은 '선장'

보통 정치인은 학창 시절 반장 등 간부를 맡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송 회장은 학창 시절 당시 문 대통령이 반장 등 간부직을 맡았던 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남 앞에 나서는 성격이 아니었죠. 뒤에서 조용히 있는 성격이었어요. 솔직히 재인이가 대선에 나온다고 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친구들과 놀기 좋아하고 쉬는 시간에 축구나 야구를 하고 그랬어요."

학창 시절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성격을 알 수 있다. 송 회장은 "축구를 할 때 공격이 아닌 수비를 잘했는데 보이지 않게 팀에 기여하는 타입이었다"며 "꽉 막힌 학생처럼 공부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고, 극히 평범하고 재미난 학생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학창 시절 장래 희망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저에게 한국해양대학에 진학해 배를 타는 선장이 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후에 한국해기사협회 고문을 맡았는데 평소에도 바다에 관심이 많았어요. 재인이 동생은 현재 선장을 하고 있죠."

학창 시절 지극히 평범했다고 기억되는 대통령의 대권 출마에 동문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대통령 출마 소식을 들었을 때의 느낌을 묻자 송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자기 길을 가는구나 싶었어요. 명예회복을 하려 한다고 생각했죠. 그 힘든 과정을 용케 잘 버티는 것을 보니 장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시작은 좋지만 끝은 대부분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송 회장은 문 대통령이 "역사에 길이 남는 훌륭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며 "편견 없이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진보·보수 양쪽을 아우르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특히 "초심을 잃지 않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는 희망을 전했다.

송 회장은 동문으로서 문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에 좋은 점수를 주었다. 특히 문 대통령의 가식 없고 솔직한 성격을 강조했다. 부산에서 변호사 하던 시절에 자주 만났다면서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부산에 내려온 문 대통령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바쁠 것 같아서 일부러 전화를 안 한다"고 말했더니 문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 없어. 나 아주 한가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송 회장이 소송을 부탁한 적도 있는데, 문 대통령이 "시간과 돈이 많이 드니까 어지간하면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는 일화도 전했다.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부산 경남고 정문에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출처

무슨 얘기든 끝까지 '경청'하는 대통령

"보통 사람이 편하게 사는 세상 만들 것"



우기현
경희대 법학과 79학번
(법과대학 민주동문회 회장)

문재인 대통령은 경희대 법학과 72학번이다. 문 대통령이 대학에 입학한 1972년은 유신헌법이 선포된 해다. 문 대통령은 1975년 4월 인혁당 사건 관계자들이 사형을 당한 뒤 사법살인에 항의하는 대규모 학내 시위를 주도하다 구속됐다. 결국 강제 징집돼 특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에 배치됐으며,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1978년 2월 만기 제대했다.

복학생 문재인을 대학에서 처음 만난 우기현 씨는 그를 이렇게 기억한다. "나 역시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우리 학번이 경험하지 못한 힘든 시절을 보낸 선배여서 보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됐어요. 후배들을 다독이는 복학생이었죠."

문 대통령은 제대 후 사법시험을 준비했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사법시험 2차 합격 통지서를 받은 것은 유명한 일화다. 대학 후배였던 우 씨는 "법학과는 사법시험을 목표로 하는데 (선배의 사법시험 합격을) 당연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다"며 "다만 일부 운동권 학생들은 사법시험을 출세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우 씨는 사회에 나가서도 문 대통령과의 인연을 이어나갔다.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하실 때 한 번 만났어요. 동문들과 식사를 함께 했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어떻게 부르냐고 물어봤죠. 그냥 '대통령님'으로 부른다고 하더군요."

나의 꿈을 실현시켜줄 후보라 생각해 캠프 참여

우 씨는 2012년 대선 때부터 캠프에서 문 대통령을 도왔다. 대선 캠프에 참여한 이유가 궁금했다. 우 씨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생각하는 세상을 실현시켜주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보니 우 씨가 생각하는 세상이 궁금해졌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우 씨의 바람은 비단 동문만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희망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우 씨가 믿게 된 데에는 대통령의 경청하는 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인연을 이어오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경험이 있었다.

"2016년 동문들이 경남 양산의 자택에 놀러간 적이 있어요. 선배님이 내가 대선 후보가 되느냐 아니냐는 나중 얘기고 지금은 보통 사람으로 대해 달라고 했어요. 양산 자택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집에 있는 의자를 다 가져다놓고 동문들이 모여 앉아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든 끝까지 경청해주셨죠."

동문으로서 문 대통령이 어떻게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랄까? 우 씨는 "국민이 편한 나라를 만든 대통령으로 기록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 "정파를 초월한 통합의 지도자가 되어 국민을 즐겁게 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 나라를 만들어주길 바란다"는 희망을 전했다.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문재인'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말, 말, 말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가난을 마다하지 않고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어간 문재인을 기억한다. 그들의 기억을 들어본다.

가난

문 대통령의 부모는 6·25 한국전쟁 시 북한에서 내려와 경상남도 거제에 정착했다. 문 대통령은 1953년 1월 24일 경상남도 거제군 명진리의 허름한 시골 농가에서 태어났다.

"1·4 후퇴 때 미군 LST(전차상륙함)를 타고 3일 만에 장승포항으로 피난을 오신 거죠. 한밤중에 숟가락 하나 못 챙기고."(중·고등학교 친구 엄수훈)

"(대통령 어머님이) 구호품, 군화, 이런 걸 수선해서 내다 파시기도 하고 연탄 배달도 하셨어요. 하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자식 교육열만큼은 엄청나셨어요."(초등학교 친구 서재현)

인권 변호사

문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부산 지역 시국 사건과 노동 사건의 변론을 맡았다.

"전국 최초로 노동법률상담소를 만들었습니다. 노동법률은 전국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었죠."(당시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 송병곤)

"실망시키지 않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 싸워주겠다, 그게 참 안도가 됐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간첩단 사건 피해자 신귀영)

정치인으로 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문 대통령의 정치 인생이 시작되는 계기가 됐다. 문 대통령은 19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18대 대선에도 출마했다.

"본인이 결심을 하고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그리고 이제 내려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이건 하나의 소명이다'라고 생각했어요."(중·고등학교 친구 황호선)



"희생과 도덕적 리더십 보고 싶다"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전 과학기술처 장관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건국 이후 한 분의 대통령도 화폐에 초상화를 싣지 못하고 광장에 동상을 세울 수 없는 국가적 불행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력의 최고 인물이며 대외적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수장이었던 11명 가운데 역사 심판과 도덕적 여과에 따라 국민의 존경을 받을 분이 없었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다. 이 나라 국민,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교과서가 아니라 바로 존경할 만한 대통령의 인격과 행적을 통해 배워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그 나라의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로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 지도자가 흔히 언급된다. 또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공원마다 역대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마지막은 '근대화 혁명' 성취의 발자국과 극단으로 역행해왔다. 이는 대통령이 끝내 가족 이기주의를 넘지 못하고 국가 및 사회 공동체의 공익에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새로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극단적인 실체와 도전 앞에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 한없이 도덕적이라야 하고 한없이 창조적이라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새 길을 창조하는 대통령이 된다."

새로 취임한 대통령은 25년 전 한 재벌 총수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고 했던 다짐을 넘어 마누라와 자식까지 버릴 각오로 패거리를 초월하길 바란다. 이것이 바로 통합·협치의 출발이다. 첫째도 희생, 둘째도 희생, 셋째도 자기를 버리는 희생을 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외교·안보적인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정치 민주화, 시민 자유경제, 문화 개방 에너지, 먹거리의 절대적 수입 의존 등 국가 생존 여건과 국내 통치 조건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역설적이지만 시민의 자유와 국가 역량이 커질수록 이 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정리하지 못한 비극이 논쟁적으로 폭발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외교·안보를 위한 국민적 합의 및 유연한 대외전략 전개, 특히 '자강'을 일깨우고 도모해야 하는 국가적 도전 앞에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19세기 후반~20세기 초의 서세동점, 1945년 분단에 이르기까지 위기 때 겪었던 분열의 비극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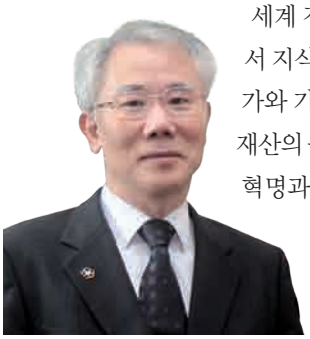
역사교과서 논쟁, 그리고 북한과 미국을 대하는 사상 논쟁에서 보듯 이 나라는 한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 세 나라로 갈라져 있다. 이를 극복하는 것, 그것도 혁명이 아닌 정상적인 민주 절차로 극복하는 것, 촛불과 태극기의 핵심을 여과·정리 발효해 한반도 및 전 세계 한민족의 평화와 미래를 개척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도전은 근대화의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다. 단기간의 과(過)성공과 역(逆)발전, 혁명의 성취와 도착(倒錯)적 결과가 한꺼번에 몰려 있는 도전이다.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고밀도의 사회 공동체이면서 급속도의 사회 해체가 공진(共進)하기 때문이다. 탄허 스님의 말처럼 끝과 시작이 함께 있는 땅이 한반도다. 3대 세습, 유사종교 폐쇄 독재의 북한과 세계 2위의 노비자(no visa)국으로서 시민의 '완전 자유'를 외치는 대한민국이 공존하는 한반도. 근대의 끝자락과 근대 넘기의 시작이 맞물린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군.

새로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극단적인 실체와 도전 앞에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 한없이 도덕적이라야 하고 한없이 창조적이라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새 길을 창조하는 대통령이 된다. 그것은 생명의 기본, 인간의 출발점, 즉 사랑, 인의, 자비에의 충실이다. 이는 선한 길이기 때문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도전을 넘어 지구촌의 도전에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단계적' 근대 과정을 겪은 선진국도, 근대를 흡수하지 못한 중국과 중동 국가도 하지 못했지만 대한민국만이 21세기 지구촌 인류의 지속 가능한 대체 문명질서를 창조해낼 수 있는 도전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식재산’ 보호정책 펼치길”

오규환 대한변리사회 회장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자산기반 경제에서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됐다. 지금까지 국가와 기업 경쟁력에서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지식재산이 더욱 주목받게 됐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 융합으로 이룬 혁명을 말한다. IT 및 전자기술 등 디지털 혁명(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및 생물공학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져 기술 융합이 일어나는 시대다. 지식재산 생태계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와 기업 경쟁력에서 지식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미국 S&P 500 기업 시장가치 가운데 지식재산 비중은 1985년부터 2010년까지 10배 증가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승자가 되기 위해 새 정부는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길 바란다.

2016년 스위스 UBS 은행이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수준은 140개국 가운데 25위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에서 다소 뒤처져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자금과 영업력 면에서 약하지만 기술력이 강한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은 기술력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제대로 보호해줘야 하는데 그 핵심적인 보호장치가 바로 특허제도다.

대기업의 경우는 대형 로펌을 통해 기술을 보호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기술을 잘 알고 특허제도에 정통한 변리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지식재산을 창출·보호·활용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수립·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정책과 벤처기업,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골목 상권에 활력 넘치는 경제 환경 조성해주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 수는 700만 명이다. 여기에 회원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2000만 명이 골목상권과 연관된 사람들이다. 그만큼 골목상권은 수많은 사람의 생계가 걸려 있는 중요한 곳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선서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기조대로 정말 소상공인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우선 권력과 재벌 유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정부가 됐으면 한다.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벌 대기업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우리 경제를 이루는 경제의 세 주체가 각각의 영역에서 경쟁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이룰 수 있다.

소상공인도 열심히 일하면 잘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서민과 소상공인에게도 희망이 열려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 정부는 누구나 공감하는 이 경제 정의의 원칙을 준엄하게 감시하고 공정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이뤄지지 못했던 시장에서의 공정한 조정자 역할을 정부가 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지를 보이려면 시스템 개혁도 중요하지만,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각 경제 주체의 특성에 맞춰 일정한 경계를 두어 힘센 자들의 횡포에서 상대적인 약자를 보호해야 약자도 나름의 영역에서 살아갈 수 있다. 집권 초반에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 있다. 언론과 국민이 그만큼 새 정부에 기대를 갖는다는 의미다. 그 첫 발을 잘 내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대로 된 인사와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국민의 성원을 얻어야 한다. 대선기간 드러난 분열과 반목을 씻어내고 국민대통합을 이뤄내길 바란다.

“이젠 백세시대, 노인 일자리 확대됐으면”

하영(80)



노인을 위한 국가의 의료 프로그램은 점차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병이 들고 난 후의 정책이 위주인 경우가 많다. 노인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프로그램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건강한 노인이 많아지면 정부의 복지 재정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노인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65세 이상의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나도 기초연금을 수급해 친구들과 여가활동을 하는 데 즐겁게 사용한다. 하지만 이 돈이 취약계층에게는 생계를 좌우하는 큰 액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기초연금이 무조건 확대되기보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오히려 노인은 일자리 확대를 원한다. 작은 일이라도 정기적으로 하면 건강해지고, 소득도 보장되고, 외롭지 않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노인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사회야말로 행복한 나라가 되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

“근로시간 단축, 칼퇴근 문화 정착으로 일·가정이 양립되길”

김수영(35·워킹맘)



아이 기르기 좋은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아닐까. 두 아이를 기르는 워킹맘으로서 일과 가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늘어나야 하고, 점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무엇보다 칼퇴근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 그럴수록 직장에서 능률도 오르고 가정에도 충실한 엄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육아와 직장일을 병행하느라 바쁜 워킹맘도 가끔은 삶의 여유가 필요하다. 생활의 중심이 아이에게 맞춰져 있는데 내일배움카드와 같은 직장인 교육복지 혜택이 공연, 전시회 등 문화 혜택으로도 확대된다면 워킹맘들에게 큰 활력소가 될 것 같다. 요즘 엄마들의 걱정 중 하나가 미세먼지다. 모든 국민이 미세먼지로 불안해하겠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살아 더 심각하게 와 닿는다.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실내에서 놀게 하는데 실질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돼 아이들이 야외에서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사회 되길”

권상현(21·장애인 노르딕스키 국가대표)



장애인 노르딕스키 선수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장애인 동료를 보았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향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한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도 부족한 편이다. 새 정부는 장애인복지를 대폭 늘렸으면 좋겠다. 전 국민에 대한 후천적 장애 발생 예방의 필요성과 장애 인식 개선을 통한 안전 생활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새 정부는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과 인권 침해 예방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그래야 모든 국민이 장애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편견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활의료에 종사하는 인력과 시설도 대폭 늘려야 하고 이들이 편중 분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대다수가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재활과 관련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합당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늘어나 국민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시장이 활성화되고 서민이 잘사는 세상 만들어주길”

최태규(56·망원시장상인회 회장)



시장은 광장과 같은 곳이다. 이웃과 교류하고 물건도 살 수 있는 일종의 소통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통시장의 운영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시장 인근에 대형마트, 복합몰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영세업자, 자영업자가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상인을 배려하는 정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대형마트, 복합몰이 전통시장의 일정 거리 내에 조성되지 않는 방안이 법적으로 보강됐으면 한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것도 상인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상인을 위한 수수료 혜택이 확대되고 있지만 규모, 업종에 따라 여전히 제한이 많다.

시장 상인도 전통시장 활성을 위해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 망원시장에서는 장보기 대행 서비스, 무료 배송 서비스, 전단 세일 행사, 자선바자 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사정이 많이 나아졌지만 모든 시장이 그렇지는 못하다. 시장이 활성화되고 서민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자유학기제, 지역 학생 위한 질적 확대 절실하다”

김동섭(30 · 교사)



중학교 1학년의 담임을 맡으면서 자유학기제를 2년간 운영했다. 다양한 진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평소 미래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던 학생도 자신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기회가 됐다.

자유학기제 운영이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시간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수도권과 지역 중소도시의 직업 체험 기회 차이가 상당히 나타났고, 교사와 학생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던 차에 새 대통령의 자유학기제 확대 공약이 반가웠다. 자유학기제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지역 거주 학생들을 배려하는 질적 개선도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 학생들이 다양한 꿈을 탐색하고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마련할 수 있도록 말이다.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돈보다는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정부가 되길”

최순화(52 ·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수색작업이 한창이다. 국민이 아니었으면 세월호는 인양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난 3년 동안 세월호와 관련된 의혹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특조위도 지난 정부의 방해로 무산됐고, 현재는 세월호 선체가 뭍으로 올라왔지만 국민이 바라던 미수습자의 수습은 아직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진상 규명은 물론이고 세월호와 같은 대형 참사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정부를 만들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을 얼마만큼 제대로 이행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세월호 유가족들은 경기도 안산에 세월호 희생자 추모공원을 건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추모공원 건립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의식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길 바란다. 돈보다는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정부가 되길 기대한다.

“청년이 열정페이 비정규 차별 걱정 안 하는 나라 됐으면”

박자강(20 · 대학생)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일자리 확대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높은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하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 나도 대학생으로서 취업 문제를 놓고 걱정이 가시지 않을 정도다. 고학력자의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대학생 인턴제 시행 시 ‘열정 페이’ 문제나 비정규직 채용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취업난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졸업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큰 사회적 문제다.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형성에 많은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

일자리 창출이 공무원 채용 숫자를 늘리는 데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새 정부가 다양한 방면으로 일자리를 양성해 질과 양적인 측면 모두 충족하는 정책을 펼치길 기대해본다. 이 나라를 이끌어나갈 청년들이 일자리 걱정 없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아직은 먼 저녁 있는 삶, 근로자들도 누릴 수 있기를”

심주용(39 · 직장인)



국내 취업자 5명 중 1명은 일주일에 평균 54시간 이상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그 정도로 근로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은 아직 먼 나라의 얘기인 경우가 많다. 새 정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저녁이 있는 삶이 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썼으면 좋겠다.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

야근을 유발하는 기업 내 조직문화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불합리한 업무 지시, 눈치문화, 획일화된 집단주의 등 조직문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노동정책이 실행되면 좋겠다.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해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길 바란다. 근로자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길 기대한다.

김태형·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

일자리 81만 개 창출, 최저시급 1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치매국가책임제…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 행사에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정치적으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사회적으로는 공정사회, 경제적으로는 성장의 열매가 개인에게 돌아가는 국민 성장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실현 방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28일 발표한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 들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4대 비전 12대 약속'을 분야별로 소개한다.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1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위기 극복은 새로운 리더십 창출에서부터 시작된다. '촛불의 민심, 국민의 명령'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새로운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국민은 비선·소수권력의 실체적 힘이었던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과 정치·선거제도의 개혁을 요구한다. 이러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국정농단과 적폐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독립적인 부패 방지 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도 설립한다. 또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문화예술 지원심사의 투명성도 확대한다.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금지하고,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이적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공직윤리를 강화해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가칭)'도 설립한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대북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한다.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가경찰은 전국적인 치안 수요에 대응한다.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고 대통령의 24시간을 전면 공개한다. 대통령의 인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 추천 실명제'도 시행한다. 이 밖에 선거 연령을 만18세로 낮춰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한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중심의 정책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바꾸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나갈 전망이다.

❷ 공정한 대한민국

'경제 민주화'란 포용적 성장과 공정한 분배의 다른 표현이다. 경제 성장의 과실을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배분하자는 것이다.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상법과 공정거래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소득과 재산에 비례한 세부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소수 재벌만을 위한, 재벌에 의한, 재벌의 사회가 아닌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 민주화'를 살아 있는 헌법 이념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가맹사업, 대규모 유통업, 대리점업, 전자상거래 등에서 각종 불공정행위 및 갑질을 근절한다.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구축한다. 또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기금(가칭)도 설치한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며, 기업의 임금분포공시제도를 도입해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한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제를 도입하고,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형량·양형을 강화한다.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한다.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❸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더는 국가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감시와 통제를 통해 민주와 인권을 유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과거사 진상 규명, 불법 사찰의 근절, 시민사회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다시 세우고, 무엇보다 시민 참여 민주주의가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과 도감청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효율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한다. 과거 국가의 잘못으로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도 검토한다. 온라인상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개별법(공직선거법, 게임산업법 등) 상의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KBS·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❹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은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이중화), 일자리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유일한 성장 전략이다. 더불어 성장론은 성장의 내용을 중시하고, 분배냐 성장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질적 성장 전략이기도 하다. 더불어 성장의 핵심 과제는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해 내수를 활성화하며, 내수 확대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관, 소방관 등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81만 개와 실제 노동시간 단축 등 민간부문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한다. 또 청년구직촉진수당제를 도입하고, 학력·학벌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적극 권장한다. 인생 이모작 설계 방안을 지원하면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실업급여(고용보험)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80만 개를 만들고, 여성청년의 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한다.

비정규직 규모는 OECD 수준으로 낮추면서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최저임금(시급)은 1만 원으로 인상하고, 생활임금제도 확대한다.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도 설립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연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실현해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위한 '칼퇴근법'을 도입한다.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청년 및 알바 체당금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알바존중법'도 마련한다. 이 밖에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만들고 '종업원 대표' 제도를 실질화한다. 감정노동자 보호법도 제정한다. 30만 택시운전자에 대해서는 생존권 차원의 보장 방안도 마련한다.

4대 비전과 12대 약속

1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❶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 ❷ 공정한 대한민국
- ❸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2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 ❹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❺ 성장 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 ❻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 ❼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 ❽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

3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 ❾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 ❿ 안전한 대한민국

4 지속 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 ⓫ 지속 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 ⓬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자료 | 더불어민주당

5 성장 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온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국가적 차원의 역량과 지혜를 동원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거대한 산업 재편과 일자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 산업을 선점해야 한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주도한 기존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제조업 재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한다.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도 확충한다. 신생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및 판로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 간 융합을 위한 M&A 규제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미래형 친환경 스마트카를 육성하고, 한국형 자율협력주행 스마트하이웨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드론산업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또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를 통해 조선 및 해운 상생협력도 구축한다. 인터넷전문은행 등에 대해서는 은행, 보험사 등 각 업권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위한 '표준운임제'도 도입한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중소 및 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한국형 히든 챔피언 육성을 위한 환경을 적극 구축한다. 추가 고용지원제도 신설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도 적극 창출한다. 300만 소상공인과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도 강화한다. 카드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 골목상권을 살린다.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 등 정부 창업 지원 펀드의 투자도 적극 확대한다. 국가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청년 과학기술인의 근로 계약도 의무화한다.

6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은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현실은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뿐만 아니라 지방으로의 기능 분산이 미흡한 상황이다. 지방분권을 강화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열 계획이다. 재정분권 확대를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선한다.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를 적극 확대하고 기준도 완화한다. 세종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이전하고 국회분원도 설치한다. 세종시와 서울 간 고속도로를 조기에 착공한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고속도로 내 주유소에 전기 및 수소 등 친환경 충전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고속철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R&D 및 설비투자를 적극 확대해 시속 600㎞대의 고속철 기술 보유국이 되도록 투자한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을 활용한 최첨단 스마트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쌀 생산 조정제 시행과 소비 확대를 통해 농민의 쌀 생산비를 보장한다.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 대한 직불제를 도입해 젊은 세대의 영농 정착을 지원한다. 아울러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마을택시를 도입해 농어민의 이동권을 보장한다.

출산, 교육, 휴가, 질병에도 도우미 쿠폰제를 확대 시행한다. 청년층,

10대 핵심 공약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 개 창출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하여 민·관 협업체계 구축 • 창업국가 조성 위해 창업 지원 확대와 연대보증제 폐지 • 실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2020년까지 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대책 병행 마련)	•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청사로 이전, 인사시스템 투명화, 대통령 경호실 폐지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 감사원 독립성 강화	•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 반부패 개혁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 개혁 추진 •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 추진 • 입시·학사 비리 연루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중단	•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 여건 개선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	•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 호 우선 배정, 저렴한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 실 공급 • 근로감독관 확대, '청년·알바 체당금제'로 체불임금 우선 지급

장년층, 노년층 등 산림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도 창출한다. 이 밖에 유휴 항만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수산직불제를 확대 개편한다.

7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 일·가정 양립, 양육·교육 비용 부담 경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새 정부는 저출산 전담기구를 설치해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육아 휴직을 확대하면서 휴직급여도 인상한다.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30일)도 시행한다. 아울러 공공난임센터를 설립하고 미숙아센터도 확대 설치한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를 편안히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비가 보장돼야 한다. 새 정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할 예정이다. 또 노인 일자리를 80만 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당을 2020년까지 현행 월 22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비, 주거비 등 노후 생활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동시에 편다.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매월 30만 원씩 균등 지급하고, 치매 치료비는 90%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병원도 설립한다.

8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

현재 미취업 청년, 노인 등은 심각한 생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가계가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도 OECD 평균의 2배 수준으로 높다. 가사와 육아 등을 이유로 여성의 경력 단절 또한 심각하다. 장애인 복지 수준도 미흡하다. 새 정부는 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도입·확충한다. 가계부채를 총량으로 관리해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금리 이자 부담을 완화하며, 생활비 절감을 위한 종합계획도 적극 시행한다. 비보험 진료를 급여화해 본인 부담 상한선을 100만 원으로 둘 예정이다. 또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지방 권역별로 어린이재활병원을 확충한다. 25개 취약 진료권역을 중심으로 우수한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지원하고, 대자본에 의한 영리형 체인화 우려가 높은 법인약국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광역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지자체 직영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를 확대하고, 담배세 인상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사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공공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3만 호씩 확보하고, 공공임대주택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또 월 30만 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 실을 공급한다. 영구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매년 공적 재원 10조 원을 투입한다.

한부모,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홈스쿨링,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한다. 벌금 미납자 등에게 최대 300만 원을 대여하는 '장발장 은행제'도 시행·확산한다.

활비 절감을 위해 정액제 광역 알뜰 교통카드를 도입해 교통비를

성 평등한 대한민국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 소득이 늘어나는 활기찬 대한민국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 여성가족부 등 여성정책기구 권한 강화 •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여성 고용 우수기업 우대,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 젠더 폭력 근절	•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어르신 70%)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국민연금·퇴직연금 강화 통해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치매국가책임제 등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OECD 평균 수준의 교육 재정 투자, 공교육 고등학교까지 확대 국가 책임 부담 •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 기준 40%까지 확대, 초등 돌봄교실 확대 • 남성 공동 출산휴가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초등 2학년까지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오후 4시 유연 근무(최장 24개월) • '칼퇴근법' 제정으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 • 영세 가맹점의 범위 확대 및 우대 수수료율 인하 •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 대기업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한 입지 규제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 공무원 복지 포인트 30%(연 3900억 원)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해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 청와대 중심의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 감염·질병 관리체계 획기적 강화 • 재난사건 대응체계 강화

정책소개 누리집 '문재인 1번가'에 수집된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 아동 학대 신속 대응, 교복 표준 디자인제 도입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5월 5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나라,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나라를 국민 10대 공약으로 시작하겠다"면서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10대 공약은 '내가 대통령이라면'이라는 주제로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 중 핵심적인 내용을 추린 것이다.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44일간 '문재인 1번가'에 총 12만 5000여 건이 접수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가다듬었다.

국민 제안으로 만든 첫 번째 공약은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이다. 15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입원 진료비를 국가가 책임질 예정이다. 두 번째 공약은 아동보호정책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아동 학대 등에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즉각 구축한다. 세 번째 공약은 '교복 표준 디자인제'를 도입해 중고등학교 교복을 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상시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몰카, 리벤지 포르노 완절 근절 ▲공공부문 학력 차별 완전 폐지 ▲청년 ICT 창작자, 스토리텔러 육성 ▲청년특허은행 설립 ▲월세 걱정 없는 청년 도미텔 설립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지하상가 공기 질 개선, 맑은 물 만들기 등이 '국민 제안 10대 공약'으로 채택됐다.

한편 국민이 제안한 정책 공약 아이디어 중 ▲미세먼지 대책 ▲난임 부부 지원 ▲반려동물 권리 보장 등은 지난 대선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의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 공약'에 반영된 바 있다.

30%가량 절감한다.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면서 반값등록금을 추진한다. 청년임대주택 30만 실도 공급한다. 또한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에 없앤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된 무선인터넷 요금제를 도입한다.

명절, 어린이날 이외에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 대체 휴일제를 실시한다. 국공립유치원 이용아동의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며, 초등학교는 돌봄학교를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온종일 완전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고교체계를 단순화하고, 고교학점제를 통해 벽 없는 학교를 추진한다.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대한 여건도 개선한다. 대학 입학제도와 관련해서는 수시전형을 대폭 개선해 제도를 단순화한다.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9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모든 국가는 주권·자결원칙에 따라 국익을 추구하면서도 인류 평화를 위해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새 정부는 상호 불신의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나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국방은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하되 책임 있는 국방을 실현하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예정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과 당당한 협력외교를 통해 더욱 국익을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먼저 새 정부는 북핵 대응의 핵심전력(KAMD, 킬체인 등)을 조기 전력화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 방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임기 내 생산목표 30조 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장병 급여는 최저임금의 30%, 40%, 50%로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또한 국민외교를 통한 국익을 더욱 늘려나갈 방침이다. 해외주재 대사관, 교포, 해외주재원, 유학생 등을 중심으로 협력시스템도 구축한다.

한·미 간 2+2(외교·국방 장관) 전략대화는 상시 운영한다. 한 · 중 간에는 고위급 전략경제대화와 국방 당국 간 대화를 활성화한다. 한 · 일 관계에서는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을 통해 국민이 동의하는 수준의 합의를 도출한다. 이 밖에 '동북아 더하기 책임공동체'를 구축한다. 범세계적 추세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해서는 통상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외국민에 대한 범죄, 테러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예방 및 대응 시스템도 강화한다.

대북문제와 관련해서는 단계적·포괄적 접근으로 과감하고 근원적인 비핵화를 추진한다.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 지역에 대한 남북 공동개발도 추진한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도 추진한다. 아울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과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도 계승 발전시킨다. 국군 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송환을 포함해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는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한다.

10 안전한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은 세월호 참사, 메르스, 지진, 태풍, 미세먼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삶의 위협을 받아왔다. 새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을 예정이다.

먼저 해양 지진, 쓰나미 등 대형 해양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자동경보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한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보강하면서 국가위기관리 매뉴얼도 보완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해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확대한다.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 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생활안전과 관련해서는 축산 방역조직과 예방책을 강화하고, 질병관리본부 내에 감염병 대응센터를 신설한다. 아울러 대통령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가량 감축을 추진하면서 미세먼지 대책기구도 설치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도 할 예정이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규 원전을 전면 중단하고 건설계획을 백지화한다. 이 밖에 학교 보안관 및 배움터 안전지킴이 등 학생 보호인력 제도를 개선하고,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11 지속 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성별 격차지수는 144개국 중 116위(2016년)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위기에 처해 있다.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 평등사회 조성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성가족부 기능을 강화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 확대 등을 통해 일·가족·생활의 균형을 실현한다. 또한 성 평등 임금공시제 등을 통해 성별 임금 격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줄인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료를 현실화하고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확대한다. 또한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젠더 폭력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한편 세계는 성장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 자연생태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자원혁신형 사회를 구축하고, 자연생태계의 사전 예방적 보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를 전격 폐쇄하는 등 탈원전·친환경·저탄소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12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화·예술을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의 나라를 지향한다.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풍요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여나간다. 새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 입각해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예정이다. 또 유네스코의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반영해 예술인의 정신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하고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열 계획이다. 또한 문화균형지수를 개발해 낙후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스포츠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 스포츠'를 적극 확대하고,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한다. 공부하는 선수, 운동하는 학생을 양성하기 위해 체육 특기자의 입시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언론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유료방송에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담기구도 신설한다. 아울러 지역방송 활성화로 지역사회 균형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실현할 계획이다. G

백승구 | 위클리 공감 기자

탈원전,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대한민국 정책

원전·화력발전소 신설 금지, 친환경차 보급 확대, 미세먼지 기준 강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국민이 뽑은 '베스트 정책'은 과연 뭘까. 놀랍게도 유권자들은 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최고로 역점을 뒀던 '일자리 창출'보다 '환경'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의 정책 소개 사이트 '문재인 1번가'에 따르면, 5월 10일 현재 '베스트 정책' 1위로 꼽힌 것은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이다('좋아요' 클릭 수 28만 4163건). 같은 환경 분야 공약인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은 5위(21만 3508건)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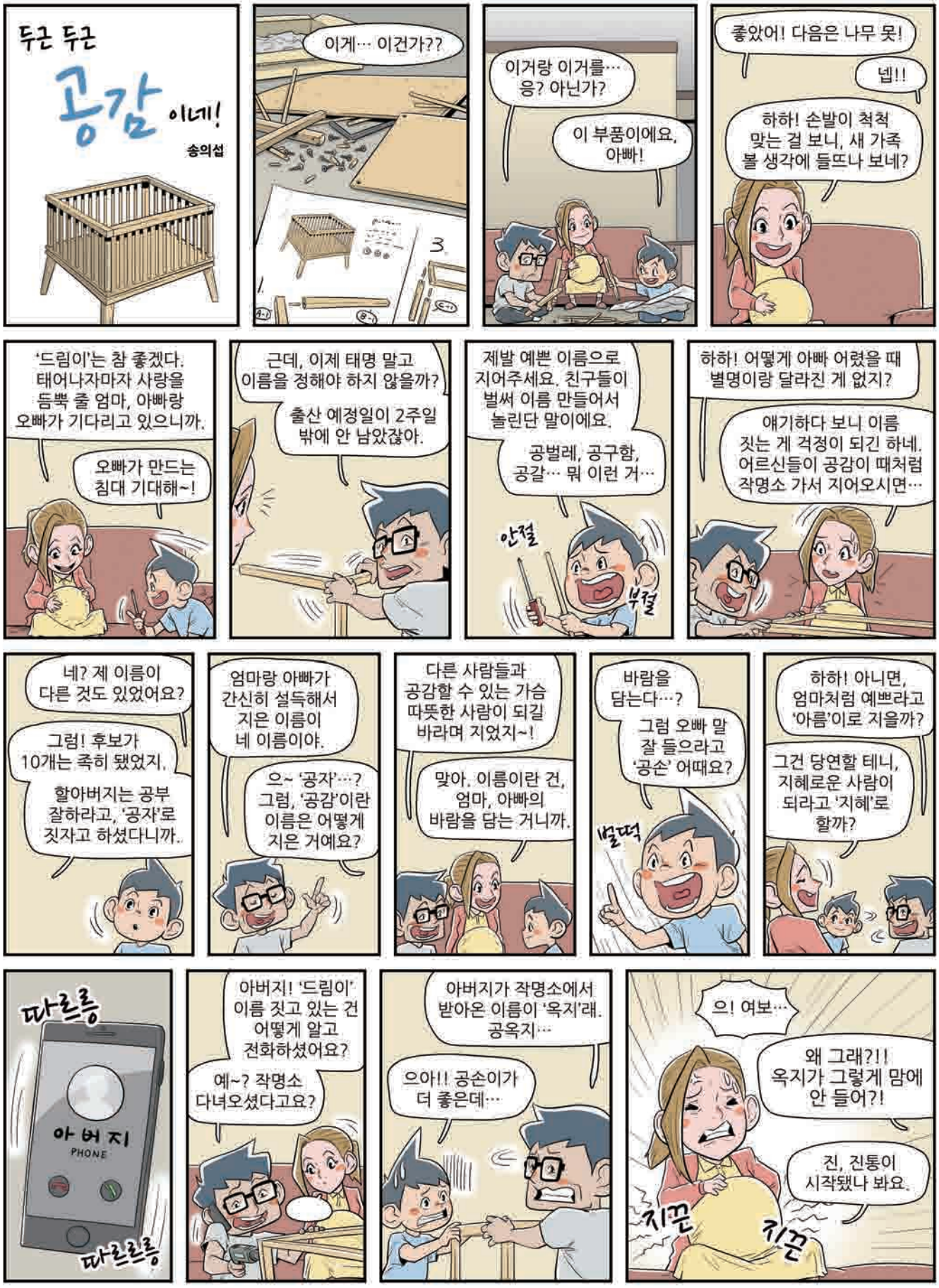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신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 "대통령이 직접 원전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아울러 미세먼지를 잡는 강력한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탈원전 · 친환경 대체 에너지 정책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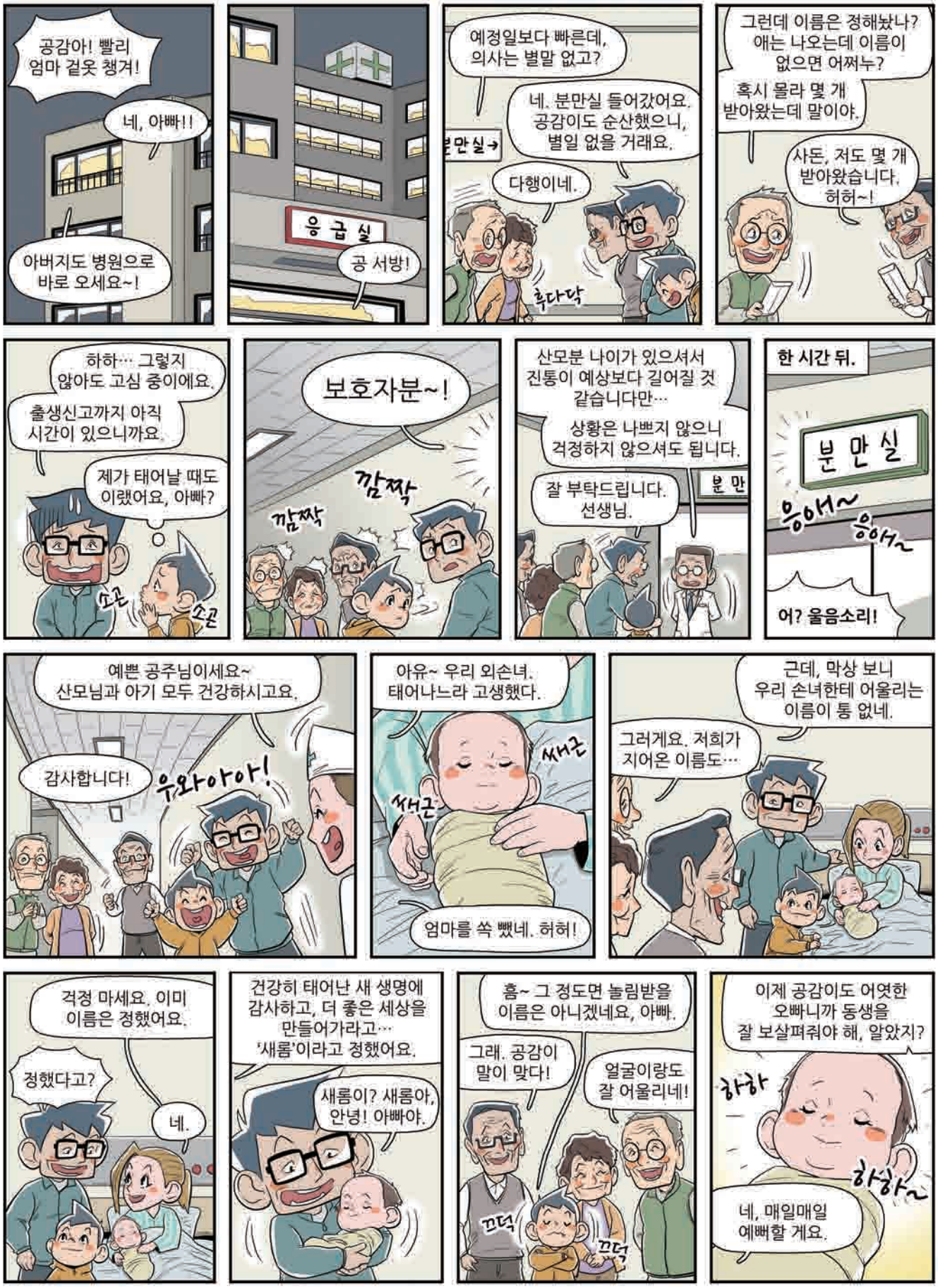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 정부는 먼저 노후 원전에 대해 '수명 연장 운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는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은 백지화할 예정이다. 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다. 가동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10기는 조기에 폐쇄하고 현재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10% 미만인 9기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기존의 석탄화력발전 비율도 획기적으로 줄여 미세먼지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유차를 줄이는 대신 친환경차 보급은 적극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개인용 경유 승용차는 퇴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입 의무 비율은 현재 50%에서 70%로 확대한다. 동시에 대형 경유화물차나 건설장비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도로먼지를 제거하는 청소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전국에 조기 구축할 예정이다.

새 정부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불안과 위협이 된 지 오래됐다는 점을 감안, 현재 한 · 중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다루는 미세먼지 대책을 양국 정상급 의제로 다룰 방침이다. 미세먼지 이동 및 저감 정책, 기술 공유 등에 대한 다자 또는 양자 간 정보 공유와 공동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 정부는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WHO 권고 수준,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특히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 · 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 배출 지역은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해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국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측정 · 예보 인프라도 대폭 보강한다.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의 미세먼지 상황은 매일매일 공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두근 두근
공감 이네!
송의섭
이게… 이건가??
이거랑 이거를… 응? 아닌가?
이 부품이에요, 아빠!
좋았어! 다음은 나무 못!
넵!!
하하! 손발이 척척 맞는 걸 보니, 새 가족 볼 생각에 들뜨나 보네?
'드림이'는 참 좋겠다. 태어나자마자 사랑을 듬뿍 줄 엄마, 아빠랑 오빠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빠가 만드는 침대 기대해~!
근데, 이제 태명 말고 이름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출산 예정일이 2주일 밖에 안 남았잖아.
제발 예쁜 이름으로 지어주세요. 친구들이 벌써 이름 만들어서 놀린단 말이에요.
공벌레, 공구함, 공갈… 뭐 이런 거…
안절
부절
하하! 어떻게 아빠 어렸을 때 별명이랑 달라진 게 없지?
얘기하다 보니 이름 짓는 게 걱정이 되긴 하네. 어르신들이 공감이 때처럼 작명소 가서 지어오시면…
네? 제 이름이 다른 것도 있었어요?
그럼! 후보가 10개는 족히 됐었지.
할아버지는 공부 잘하라고, '공자'로 짓자고 하셨다니까.
엄마랑 아빠가 간신히 설득해서 지은 이름이 네 이름이야.
으~ '공자'…? 그럼, '공감'이란 이름은 어떻게 지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가슴 따뜻한 사람이 되길 바라며 지었지~!
맞아. 이름이란 건, 엄마, 아빠의 바람을 담는 거니까.
바람을 담는다…?
그럼 오빠 말 잘 들으라고 '공손' 어때요?
벌떡
하하! 아니면, 엄마처럼 예쁘라고 '아름'이로 지을까?
그건 당연할 테니,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지혜'로 할까?
따르릉
아 버 지
PHONE
따르르릉
아버지! '드림이' 이름 짓고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어요?
예~? 작명소 다녀오셨다고요?
아버지가 작명소에서 받아온 이름이 '옥지'래. 공옥지…
으아!! 공손이가 더 좋은데…
으! 여보…
왜 그래?!! 옥지가 그렇게 맘에 안 들어?!
진, 진통이 시작됐나 봐요.
지끈
지끈


공감아! 빨리 엄마 겉옷 챙겨!
네, 아빠!!
아버지도 병원으로 바로 오세요~!
응급실
공 서방!
예정일보다 빠른데, 의사는 별말 없고?
네. 분만실 들어갔어요. 공감이도 순산했으니, 별일 없을 거래요.
분만실→
다행이네.
후다닥
그런데 이름은 정해놨나? 애는 나오는데 이름이 없으면 어쩌누?
혹시 몰라 몇 개 받아왔는데 말이야.
사돈, 저도 몇 개 받아왔습니다. 허허~!
하하… 그렇지 않아도 고심 중이에요.
출생신고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제가 태어날 때도 이랬어요, 아빠?
소곤
소곤
보호자분~!
깜짝
깜짝
산모분 나이가 있으셔서 진통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 같습니다만…
상황은 나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분만
한 시간 뒤.
분만실
응애~
응애~
어? 울음소리!
예쁜 공주님이세요~ 산모님과 아기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우와아아!
아유~ 우리 외손녀. 태어나느라 고생했다.
쌔근
쌔근
엄마를 쏙 뺐네. 허허!
근데, 막상 보니 우리 손녀한테 어울리는 이름이 통 없네.
그러게요. 저희가 지어온 이름도…
걱정 마세요. 이미 이름은 정했어요.
정했다고?
네.
건강히 태어난 새 생명에 감사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라고… '새롬'이라고 정했어요.
새롬이? 새롬아, 안녕! 아빠야.
흠~ 그 정도면 놀림받을 이름은 아니겠네요, 아빠.
그래. 공감이 말이 맞다!
얼굴이랑도 잘 어울리네!
끄덕
끄덕
이제 공감이도 어엿한 오빠니까 동생을 잘 보살펴줘야 해, 알았지?
하하
하하~
네, 매일매일 예뻐할 게요.

2017 FIFA U-20 월드컵 축구 5월 20일 개막

"세계 24개국 축구 신성들 집결, 죽음의 조에 속했지만 승산 있다"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한국의 초여름이 일찍부터 뜨거워질 전망이다. FIFA U-20 월드컵 축구대회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린다. 축구 슈퍼스타의 등용문이라는 젊은이의 축제는 풍성한 부대 이벤트와 함께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1979년 일본에서 열린 제2회 FIFA U-20 월드컵은 세계 축구사에서 매우 중요한 대회로 기억된다. 1980년대를 지배한 불세출의 축구 신동 디에고 마라도나가 전 세계에 자신의 재능을 드러낸 대회였기 때문이다.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며 아르헨티나의 전승 우승을 이끌어낸 마라도나의 맹활약은 당시 막 연령별 대회를 도입하며 조심스레 성공 여부를 타진했던 FIFA를 활짝 웃게 했다. 축구 슈퍼스타의 등용문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면서 대회는 회를 거듭할수록 전 세계 축구 팬의 이목을 모았다.

한국 축구 역시 이 대회와 인연이 깊다. 최순호부터 기성용에 이르기까지 한국 축구의 차세대 스타 계보를 확인할 수 있었던 대회가 바로 FIFA U-20 월드컵이다. 눈부신 신성을 가득 머금은 이 대회가 2017년 5월 한국에서 펼쳐진다. 2017 FIFA U-20 월드컵 코리아에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축구 팬의 시선이 몰린다.

세계 축구의 총본산인 FIFA가 개최하는 대회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것은 역시 FIFA 월드컵이다. 전 세계에서 치열한 예선을 돌파한 각 대륙 최강자들이 한데 모여 자웅을 겨루는 FIFA 월드컵이 가진 가장 큰 의미는 작금의 세계 축구 최강자를 확인하고 축구 경향의 변화를 확인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한 단계 아래인 FIFA U-20 월드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엄연히 트로피를 걸고 하는 대회인 만큼 당연히 승패가 중요하다. 하지만 FIFA U-20 월드컵을 관전할 때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선수들이다. 이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성인 선수로 성장하기 직전의 유망주들이다. 다시 말해 그라운드에서 펼쳐질 진검 승부도 흥미진진하지만, 향후 10년 내에 세계 축구를 호령할 법한 선수와 팀을 미리 살펴보는 이색적인 재미도 있다. 그래서 FIFA U-20 월드컵은 축구계의 현재를 아우르는 것은 물론, 미래를 내다보는 바로미터를 제시한다는 의미를 지닌 대회라 할 수 있다.



5월 8일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과의 연습경기 중 볼을 다투고 있는 이유현 선수.

뉴시스

영광스러운 도전에 임하는 신태용호

때문에 이 대회를 관전할 때는 현재의 승패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국 유망주들의 떡잎이 얼마나 튼튼하게 자랄 수 있을지 세계무대에서 검증하고, 향후 세계 축구의 헤게모니가 어느 나라로 향할지에 주목해야 한다. 경기 결과에 즐거울 때도 있고 아쉬울 때도 있겠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회를 즐긴다면 재미가 더욱 배가될 것이다.

2017 FIFA U-20 월드컵 코리아에는 전 세계에서 치열한 예선을 뚫고 올라온 23개 팀과 개최국 한국을 포함해 총 24개 팀이 각축을 벌인다. 4개 팀씩 6개 조로 나뉘어 조별 라운드를 치르며, 각 조 상위 1·2위 팀과 각 조 3위 6개 팀 중 와일드카드 자격을 얻은 상위 4개 팀 등 총 16개 팀이 토너

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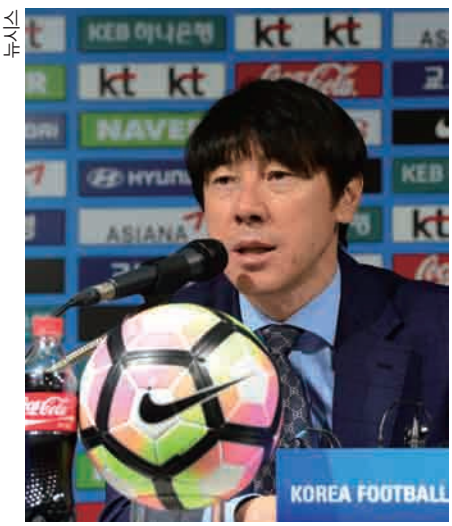


5월 11일 오후 청주시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U-20 축구대표팀 우루과이 평가전에서 강지훈이 감각적으로 찬 공이 골망을 흔들고 있다

먼트를 치러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한국 팬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팀은 당연히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0 대표팀이다. 이승우·백승호로 대표되는 우수한 선수 자원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축구를 펼치면서 축구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는 신태용호는 본선 A조에서 기니(5월 20일 저녁 8시, 전주), 아르헨티나(23일 저녁 8시, 전주), 잉글랜드(26일 저녁 8시, 수원) 순으로 경기를 펼친다. 이번 대회에서 최대 '죽음의 조'로 꼽히는 대진이기 때문에 한 경기도 허투루 치를 수가 없다.

홈팀인데도 불리한 대진을 받은 상황이지만 신 감독의 자세는 당당하기만 하다. 신 감독은 "조별 라운드에서는 무조건 1위, 토너먼트에서는 최소 8강"이라고 목표를 제시했다. 허황된 목표가 아니다. 신태용호는 지난 1월 포르투갈 전지훈련을 시작으로 해당 연령대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선수들을 모아 옥석을 추렸다.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해외의 한국 혼혈 선수들까지 두루 살피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며 최고의 기량을 가진 21명을 선발해냈다. 단순히 선수 선발에만 신경 쓴 것이 아니라 전지훈련과 친선대회를 통해 조직력을 끌어올렸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한 골을 내주더라도 두 골을 넣는 축구로 세계적 강호와 일전에서 승리하겠다는 일성을 남겼는데, 이는 팀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포부다. 이는 수장만의 자신감이 아니다. 간판 스타인 이승우는 신 감독보다 한 발 더 나아가 FIFA U-20 월드컵의 정상에 오르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5월 20일부터 한국에서 열리는 FIFA U-20 월드컵 대회는 축구계의 새로운 슈퍼스타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팀은 불리한 대진에도 불구하고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려 선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력한 우승 후보와 생소한 언더독

한국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팀이 상당히 많다. 특히 최근 유럽 유소년 축구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프랑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 챔피언 자격으로 FIFA U-20 월드컵

코리아에 출전하는 프랑스는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팀 중 선수들의 이름값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무거운 팀이다. AS 모나코의 특급 골잡이 킬리앙 음바페가 빠지게 됐지만, 장 케빈 오귀스탱, 루도빅 블라스 등 '레블뢰 군단'의 미래를 책임질 특급 재능꾼들이 스쿼드를 가득 메우고 있다. 이견의 여지가 없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한국과 같은 조에 속한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 역시 시선을 둘 만한 팀이다. 특히 잉글랜드는 신 감독이 가장 껄끄러운 팀으로 지목했는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를 누비는 스타급 유망주들이 대거 몸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미닉 솔란케, 아데몰라 루크먼 등 주말 저녁 EPL 중계를 통해 한국 팬들에게도 얼굴을 알린 선수들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라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FIFA U-20 월드컵 최다 우승팀(6회)인 아르헨티나는 남미 예선에서 커트라인인 4위를 가까스로 달성해 본선에 진출했다. 지역 예선에서 보인 갈팡질팡한 행보 때문에 허약해 보일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 맨파워에서는 대회 정상을 다툴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히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마르셀로 토레스 투톱은 지역 예선에서 열 골을 만들어낼 정도로 막강한 파괴력을 과시했다. 화력만큼은 26개 팀 중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언더독의 도전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대회는 바누아투, 베트남 등의 약체도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것이 특이점으로 꼽힌다. 지역 예선을 돌파하긴 했으나 본선에서 경쟁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축구공은 둥글다. 이들이 2017 FIFA U-20 월드컵 코리아에서 파란을 일으킨다면 역대 대회를 통틀어 가장 센세이셔널한 대회로 축구 팬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김태석 | 베스트일레븐 기자

'오! 필승코리아' 함성 다시 울린다
서울역광장 거리응원 개최… 즐길거리 가득

FIFA가 주관하는 대회는 단순한 축구대회가 아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온 수많은 축구 팬이 한자리에 모여 축구를 매개로 교류와 우애를 다지는 장이다. FIFA 주관 대회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인 FIFA U-20 월드컵 역시 마찬가지다. 대회 조직위원회와 경기 개최 도시 6곳(수원·전주·인천·대전·천안·제주)은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축구 팬을 맞이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이벤트는 거리 응원이다.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 축구 팬들이 거리를 온통 붉게 물들였던 응원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회 개막 일주일 전인 5월 14일 치러지는 한국과 세네갈의 평가전에 앞서 이날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역광장에서 거리 응원 행사를 연다. 거리 응원은 대회 기간에도 이어진다. 한국과 기니의 개막전이 벌어지는 5월 20일 정오부터 저녁 8시까지 서울역광장에서 거리 응원 행사가 펼쳐지며,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를 상대로 치러지는 조별 라운드 2·3차전의 거리 응원 행사는 각각 5월 23일과 26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물론 한국이 16강에 진출할 경우의 거리 응원도 예정되어 있다.

대회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도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축구 팬을 초대한다. 이번 대회의 본부 도시로 선정된 수원시는 경기 당일 정조대왕 거둥(擧動, 임금의 나들이) 재현 행사를 열며, 중앙광장에 무대를 설치해 수원시 무예 공연단이 '무예 24기'를 공연한다.

이 밖에도 U-20 월드컵 경기 입장 티켓을 소지한 축구 팬에게 화성행궁 등 수원시 주요 관광지 무료 입장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대회 개막전이 열리는 전주시는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주 한지패션대전, 대한민국 한지예술대전 등 지역 색채를 드러낸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대회의 열기가 한창 달아오를 5월 30일에는 전주 덕진공원에서 '에헤야 전주 단오! 덕진연못 물맞이 가세'를 주제로 한 전주 단오행사가 열린다. 또한 대전·천안·제주 등 대회 개최 도시는 저마다 지역 색깔을 드러내는 행사를 마련하고, 2017 FIFA U-20 월드컵 코리아를 찾는 축구 팬들에게 도시를 홍보함과 동시에 한국의 미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뉴시스

가장 주목할 만한 이벤트는 거리 응원이다.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 축구 팬들이 거리를 온통 붉게 물들였던 응원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사진은 2012년 올림픽축구 일본전 경기를 응원하는 시민들.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여학생 객실 수색 계속, 사람 뼈 추정 유해 발견

세월호 4층 선체 선미에서 5월 11일 오전 10시 30분쯤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해 1점이 추가 발견됐다. 전날 같은 공간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골 2점이 나온 후 다시 1점이 수습된 것으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도 빠른 진척이 이뤄지고 있다.

선체 수색을 시작한 지 22일째인 5월 10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4층 선미 좌현 쪽에서 사람 뼈 2점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유해는 이날 오전 여학생 객실인 4층 선미 좌현 쪽을 수색하기 위해 진입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8시 10분쯤 1점, 9시 25분쯤 1점이 발견됐다. 선체 수색에서 사람 뼈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유해 2점 외에 옷가지 등 신원을 확인할 만한 단서는 없었다.

5월 5일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는 미수습자를 수색하던 중 처음으로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다. 현장수습본부는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북쪽 3km 지점에서 오전 11시 36분경 길이 34cm의 뼈가 1점 발견됐다"며 "발견된 유해가 사람 뼈로 추정돼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사람 뼈로 추정되는 뼛조각의 DNA를 확인하는 등 정밀검사를 하는 데는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 뼛조각이 발견된 해역은 유실 방지를 위해 펜스를 쳐놓은 곳이다. 현장수습본부는 세월호를 들어 올릴 때 미수습자가 유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고 해역 해저에 가로 200m, 세로 160m, 높이 3m의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 세월호 인양 이후 40개 구역에 대한 수색을 모두 마쳤으며, 이후 객실이 맞닿은 선미 부분 2곳을 특별구역으로 정하고 종횡 방향으로 교차 수색했다. 40개 구역에 대한 수색이 완료되면 수중음파탐지기를 투입해 펜스 테두리 1.5m 반경을 추가 수색할 예정이다.

5월 8일에는 단원고 여학생들이 묵었던 세월호 4층 객실에 처음으로 진입로가 뚫렸다.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0분쯤 여학생 객실이 있던 세월호 4층 좌현 천장에 가로 3m, 세로 5m 크기의 사각형 구멍을 뚫었다. 세월호 현장수습팀은 선체 하부를 절단해 구멍 2개를 확보하고 약 30cm 간격으로 구멍 4개를 더 뚫어 객실 내부를 수색할 계획이다. 현장수습본부는 여학생 객실이 있던 4층 구역은 침몰 당시 받았던 충격 때문에 구조물이 맞닿아 협착된 부분이 많지만, 펄이나 지장물이 덜 쌓여 수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에는 유류품 세척대가 작업현장에 추가로 투입됐다. 세척대가 추가 도입됨에 따라 펄과 유류품을 분류하는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진행한 선내 수색과 진흙 분리 과정 중 유류품 41점과 동물 뼈로 추정되는 뼛조각 29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현장수습본부는 세월호 선내 수색에도 속도를 내려 한다. 김철홍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과장은 5월 8일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을 5월 말쯤 1차로 마무리하고 6월 초에는 차량이 쌓여 있는 화물창에 진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세월호 선체 수색은 미수습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어 3~5층 객실을 중심으로 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현장수습본부는 객실 수색을 5월 말이나 늦어도 6월 초쯤 마무리한 후 화물창에 쌓여 있는 자동차를 빼낼 예정이다. 오는 5월 30일까지 여름철 태풍에 대비한 전면적인 보강작업을 마무리하고 화물창에 진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화물창을 수색하는 방법은 객실 수색과 마찬가지로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제시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뉴시스

5월 8일 오전 전남 목포신항에서 코리아쌀베지 작업자들이 세월호 선미 4층 객실 진입을 위해 출입로 개설 작업을 하고 있다.

장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남고산성

전주의 역사를 한눈에

전주시에는 '한옥마을'이라는 유명 여행지만 있는 게 아니다. 전주 시내를 발 아래 두고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산들이 있다. 전주 시가지 동쪽에는 기린봉(306m), 승암산(306m)이, 남동쪽에는 남고산(248m)이 있다. 모두 시가지를 보호하듯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는 형세며 실제로 산성이 있다.

따로따로 찾아가야 하지만 전주 여행길에 놓치면 절대 안 되는, 매력 만점 여행지다. 특히 남고산을 에두르고 있는 남고산성의 만경대, 억경대, 천경대에서는 전주 시가지가 파노라마 필름처럼 펼쳐진다.

북장대 성곽. 전주 시가지를 확실하게 조망할 수 있다.

남고산은 옛날 고대산, 고달산으로 불렸던 고덕산(603m) 봉우리 중 하나다. 남고산 능선을 따라 남고산성(사적 제294호)이 있다. 남고산성은 견훤이 후백제를 세웠을 때 쌓은 성으로 전해온다. 견훤은 전주의 동서남북을 제압하기 위해 산성을 쌓고 동서남북에 각각 사찰을 지었다.

당시 남고산성은 '전주성', '견훤고성', '완산성', '만경산성', '고덕산성' 등으로 불렸다. 성안에는 7개의 우물과 계곡이 있었다고 한다. 그 후 최영일이 글을 짓고 서예가 이삼만이 쓴 남고진사적비에 따르면, 조선 순조 12년(1812) 관찰사 박윤수가 산성을 고쳐 쌓고 남고산성이라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보수공사를 할 당시 4개의 연못, 25개의 우물, 민가 100여 채가 성내에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현재는 성문과 장대 등 방어시설 터와 북문이 있었던 자리의 석축만 남아 있다.

산성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지만 동서학동 쪽이 일반적이다. 그곳엔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충경공 이정난(1529~1600)을 모신 충경사가 있다. 충경사를 지나 길을 따라 오르면 산성 벽화마을이다. 2011년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산성마을이 벽화마을로 불리게 됐다. 전주 도심과 거리가 멀지 않음에도 온전한 전원 풍치다. 하천을 낀, 다소 가파른 도로를 따라 허름한 민가들이 터를 잡고 있다. 특히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친근한 벽화가 그려진 담벼락이 눈길을 끈다.


1


2


3

1 한옥마을 관광객의 필수 방문 코스인 전동성당 2 남고사 경내 3 오목대에서 바라본 한옥마을

충경사 → 산성 벽화마을 → 남고사 → 서암문지 걷기 코스

마을길을 따라가다 남고산성으로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한다. 성의 둘레는 약 5.3km인 포곡식 석축 산성이다. 길지 않은 성벽이지만 걷는 코스는 의외로 복잡한데, 버스 종점을 지나 서암문지에서 트레킹을 시작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다. 남고사 안내판을 따라 가파른 성곽 길을 올라가면 '만경대 암각서'를 만난다. 포은 정몽주 선생이 지었다는 '우국시'가 새겨진 큰 바위다. 정몽주는 왜 이 높은 곳까지 올라와서 시를 지었을까? 이성계는 고려 우왕 6년(1380) 남원 운봉의 황산대첩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가는 길에 오목대에서 전주 이씨 종친을 모아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에서 이성계는 한 고조 유방이 불렀다는 '대풍가'를 불렀다. 대풍가를 듣던 정몽주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내처 말을 달려 만경대에 올라 시를 지었다.

천 길 높은 산에 비낀 돌길을 홀로 다다르니/가슴에는 시름이여/청산에 깊이 잠겨 맹세턴 부여국(夫餘國)은/누른 잎 휘휘 날려 백제성(百濟城)에 쌓였네/9월 바람은 높아 나그네 시름 깊고/백 년의 호탕한 기상 서생은 그르쳤네/하늘의 해는 기울고 뜬구름 마주치는데/하염없이 고개 돌려 옥경(玉京, 개경)만 바라보네

암각서는 영조 22년(1742)에 진장 김의수가 각자했다고 전해온다. 또 우국시 옆 암벽에는 순조 20년(1820)에 전라도 관찰사 이서구가 정몽주의 시를 보고 새긴 시도 있다지만 긴 세월 동안 글자가 마모되어 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대신 사진이 걸려 있다.

암각서에서 50m만 오르면 만경대다. '만 가지 경치를 볼 수 있다' 해서 붙은 이름이다.





1 치명자산에서 바라본 전주 **2** 산성 벽화마을

전주가 한눈에 조망되는데 이 방향에서는 한옥마을 쪽보다는 완산구 칠봉이 더 선명하게 잡힌다. 만경대 지척으로 남고사가 있다. 남고사는 신라 문무왕 8년(668)에 고구려에서 백제로 귀화한 보덕의 제자 명덕이 창건했다고 전해온다. 현재의 대웅전 오른쪽 앞 건물 자리가 옛 절터 남고사지(전라북도 기념물 제72호)다. 예부터 해 질 녘에 들리는 남고사의 종소리를 '남고모종(南固暮鐘)'이라 하여 전주 8경의 하나로 꼽았다.

남고사를 비껴 산정으로 오르면 성벽이 이어지고 서포루대 '억경대'를 만나게 된다. 이곳에서는 전주 시가지를 만경대 쪽보다 더 확실하게 조망할 수 있다. 특히 한옥마을이 완벽하게 가늠된다. 연이어 성곽을 따라 동쪽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북장대'다. 군사 훈련지였다는 북장대는 생각보다 터가 좁다. 성곽 길은 북포루대와 동문지를 지나 동포루대~동암문지~남암문지 천경대로 이어진다. 천경대에서 바라보는 전망도 멋지다.

성곽을 따라 내려오면 삼경사라는 개인 사찰이 있고 계곡 옆 약수터가 독특하다. 이렇게 하면 남고산성 한 바퀴를 온전하게 다 돌아보는 셈이다. 산이 야트막해 아이들을 동반해 걷기에도 좋다. 참고로 동문지 갈림길에서 내려서면 관성묘(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5호)와 서암문지로 이어진다. 아스팔트 포장길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는 관성묘는 조선시대 사당으로 주왕묘 또는 관제묘라고도 한다. 걷기 시작점인 서암문지로 가는 길에도 나무 밑동에서 솟아나는 약수터와 황톳길, 걷기 좋은 코스가 따로 만들어져 있다.

이신화 | 여행작가

여행 정보

트레킹 코스 차량 이동은 남고사까지 가능하다. 남고사에서 시작하면 훨씬 걷기가 수월하다. 그 외는 서암문지 → 만경사 암각서 → 서문지 → 남고사 → 억경대 → 북장대 → 북포루대~동문지까지가 절반이다. 또 천경대 → 남포루대 → 남향문지 → 동향문지 → 동포루대 → 동문지 순으로 걸으면 된다. 어느 쪽에서 시작하든 3~4시간이면 가능하다.

찾아가는 길 호남고속도로 전주 IC → 반월교차로에서 시청 방면으로 난 26번 국도로 우회전 → 조촌교차로에서 시청 방면(기린대교)으로 좌회전 → 금암광장사거리에서 시의회 방면으로 좌회전 → 태조로 → 한옥마을

추천 별미집 전주비빔밥은 **가족회관**(063-284-2884), 콩나물해장국은 **왱이집**(063-287-6979)이 괜찮다. 남문시장에 있는 **풍남집**(063-282-4289)은 피순대가 유명하고, **동래분식**(063-288-4607)은 깨죽, 팥죽을 잘한다. 국수가 먹고 싶다면 **예촌면사무소**(063-286-0909, 치자 넣은 웰빙 국수), **이연국수**(063-242-0036)가 괜찮다. 그 외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난 맛집으로는 **웰빙 새알팥죽집**(063-244-0765)이 있다. 보리밥을 덤으로 주고 진한 팥 국물과 겉절이 김치가 일미다. 건강식으로는 **족보설렁탕**(063-277-0004)과 **백세곰탕**(063-274-8855)이 괜찮다. **금성식당**(063-253-3915)은 5000원짜리 백반이 맛있다. 간식은 한옥마을에 있는 **외할머니 솜씨집**(063-232-5804, 흑임자빙수, 팥죽)을 꼽을 수 있다. **PNB풍년제과**(063-285-6666, 견과류 넣은 초코파이)가 유명하고 안디옥교회 뒤에 있는 **찐빵집**(063-274-0455)도 놓치면 아쉬운 곳이다. 또 전주는 '가맥집(가게맥주)'이 인기인데 **전일슈퍼**(063-284-0793)의 간장 소스가 독특하다. 막걸리 골목은 삼천동 일원, 서신동 등이 유명하다.

숙박 정보 한옥마을 내에는 **한옥생활체험관**(063-287-6300), **양사재**(063-282-4959), **동락원 별관**(063-282-2900) 등 숙박할 곳이 많다. 특히 **학인당**(063-284-9929)은 고종 때 인물인 인재 백낙중이 부친을 위해 지은 집으로 백범 김구 선생이 묵었다고 한다.

기타 정보 전주 한옥마을(최씨 종대, 최명희 문학관, 향교, 오목대, 한벽루 등)을 돌아보는 것은 기본이다. 또 한옥마을 근처 영화의 거리, 풍남문(보물 제308호), 전주객사(보물 제583호), 자만 벽화마을 등 볼거리가 많다. 그 외 견훤의 흔적을 더 찾아보려면 기린봉(271m)과 승암산(306m)을 찾으면 된다. 산정 밑에는 후백제왕 견훤이 37년간 통치했다는 왕궁지, 동고산성(전라북도 기념물 제44호), 동고사(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2호) 등의 유적지가 흩어져 있다. 치명자산 성지에 올라도 조망이 좋다.

문의 남고산성 063-284-9640
전주시 전통문화과 063-281-2167~7

KOR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5월 셋째 주

15일


조선DB

● 신라 문무대왕릉 발견

1967년 5월 15일 경북 경주시 월성군 양북면 봉길리 200m 앞바다의 대왕바위에서 바닷물 속에 지어진 문무대왕릉이 발견됐다. 문무대왕은 "내가 죽으면 서국(인도)식으로 화장해 동해에 장사를 하라. 그러면 용이 되어 왜구의 침입을 막으리라"라고 유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은 문무대왕릉 앞바다에서 해맞이를 즐기는 사람들.

16일


조선DB

● 중국 문화대혁명 시작

1966년 5월 16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의 베이징확대회의에서 마오쩌둥 주석의 승인을 받은 '5·16 통지'가 발표됐다. 이날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했다. 이 통지는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의 깃발 아래 학술, 교육, 보도, 문화, 예술, 출판계의 부르주아 반동사상을 철저하게 비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진은 중국 문화대혁명 초기의 마오쩌둥.

● '용가리' 해외 판매 39억 원 기록

1998년 5월 17일 제51회 칸 국제영화제와 함께 열린 영화 견본시장에서 영화 '용가리'가 280만 달러(약 39억 원)의 해외 판매 계약고를 올렸다. 영화는 해외 판매를 고려해 미국 배우들을 주연으로 기용하고 영어로 제작했다. 심형래 감독은 이 영화로 '신지식인 1호'라는 영예를 안았다. 사진은 '용가리' 극장 포스터.

17일



조선DB

18일


5·18기념재단

● 5·18 민주화운동

1980년 5월 18일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자 민주주의 혁명의 도화선이 된 5·18 민주화운동이 시작됐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암살로 유신체제의 종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12·12 사태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다. 이에 항의하는 산발적인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특히 광주에서는 투입된 계엄군과 시민들이 충돌해 유혈사태가 빚어졌다. 5월 27일 계엄군이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시위를 무력 진압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은 비극적인 막을 내렸지만 이후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축구박물관 개관

1999년 5월 19일 서울 신문로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 1층에 한국 축구 100년사를 한곳에 모은 축구박물관이 개관했다. 축구박물관에는 역대 국가대표 유니폼, 공, 축구화, 국제대회 트로피, 국내 프로축구의 역사 및 각 팀별 유니폼 등과 사진으로 보는 한국 축구 100년사가 일목요연하게 전시됐다. 사진은 축구박물관 전시 자료.

19일


조선DB

20일


조선DB

● 미국 닉슨 대통령 소련 방문

1972년 5월 20일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소련 방문길에 올랐다. 닉슨의 소련 방문은 냉전 시대에서 대화의 시대로 옮기는 시발점이 됐다. 닉슨은 같은 해 2월 중국을 방문해 마오쩌둥과 미·중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이로써 세계는 동서 데탕트(긴장 완화)의 시기를 맞았다.



연합

21일

● 대한극장 철거

좌석 수 1924석으로 대형 극장 시대를 주도했던 대한극장이 2000년 5월 21일 '칭기즈칸' 상영을 마지막으로 멀티플렉스로의 변신을 위해 철거에 들어갔다. 1956년 건립된 대한극장은 단일 개봉관 시대에 대형 극장의 상징 같은 곳이었다. 사진은 과거 서울 충무로의 대한극장 전경.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가짜 말고 진짜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상실의 시대〉에 쓰인 서문을 생각한다. "진짜와 가짜가 똑같이 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언어가 있었는가 하면, 거짓의 언어도 있었습니다. 깨끗함이 더러움이 되었고, 더러움이 깨끗함이 되었습니다."

'상실의 시대'를 보내고 마침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 가짜와 거짓과 더러움이 아닌 진짜와 진실과 깨끗함의 시대를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 모두가 새 대통령과 정부에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 정권에서 문화만큼 무시당하고 상처입고 신음한 것도 없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문화를 내세워 문화를 초토화시켰다는 사실이다. 문화융성을 소리 높여 외치면서 사유화, 이념적 편 가르기, 겉만 화려한 보여주기식 이벤트, 다분히 사적 취향에 편중된 지원으로 문화를 망가뜨렸다. 그 결과 문화에 가짜와 거짓과 더러움만 가득했다. 그러니 어떻게 문화가 숨을 쉴 수 있었겠는가.

문화는 진짜여야 한다. 문화는 진실이어야 한다. 문화는 깨끗해야 한다. 그래야 문화는 숨을 쉬고 자란다. 그런 문화를 만들고 즐길 때 문화는 생활이 되고 삶이 된다. 삶이 어렵다고 문화를 뒷전으로 미루면 안 된다. 당장은 먹고사는 일, 그것을 위해 직장을 만들어야 하는 일이 시급하지만, 그렇다고 문화를 뒷전에 밀쳐두면 안 된다. 문화는 정신의 양식이고 복지이기 때문이다. 정신이 굶주리고 황폐한 삶은 또 다른 '가난'이다.

새 정부는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한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특히 문화는 '자유' 속에서 숨을 쉰다. 숨을 쉬어야 창조성과 다양성이 나오고, 그 창조성과 다양성이 문화와 문화 향유를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국민과 국가의 품격을 높인다. 정부 역시 그것을 보장해야 한다. 말 그대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가장 기본적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여기에는 문화와 예술에 대한 가치 이외에 그 어떤 '거짓'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문화는 문화여야 가치가 있다. 문화가 정치가 되고, 경제가 되고, 이념의 선전과 수단이 되면 그것은 이미 문화가 아니다. 지난 10년간 세상이 팍팍하다보니 모든 것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일이 많았다.

문화도 예외가 아니었다. 입만 열면 문화산업이고, 콘텐츠산업이고, 문화의 경제적 가치였다. 틀린 말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문화가 중요한 경쟁력이고 전략산업임에는 틀림없다. 문화콘텐츠가 생산 유발 효과를 높이고, 고용을 늘리고, 나아가 저비용, 무공해 지식과 감성산업으로서 경제의 패러다임까지 바꾸고 있다. 문화가 '돈'인 시대다. 문화가 '돈'만 밝혀서는 안 되지만, 문화 없는 경제도 생각할 수 없다.

그 경제적 힘 역시 문화의 본질과 공정한 문화생태계에서 나온다. 지나친 경제논리와 불공정한 경제 속에서는 문화의 창의력과 다양성과 자유로움은 설 곳을 잃고, 문화를 썩게 만들고, 문화예술인과 국민을 문화로부터 소외시킨다. 국가의 문화정책과 예산이 개인의 천박한 취미생활과 비선 실세들의 주머니 챙겨주는 것으로 악용된다.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를 청산하고 갈등과 반목을 넘어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문화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 감동, 문화 공정, 문화 향유,

문화 가치의 증대가 필요하다. 문화는 '감동'이어야 한다. 감동은 공감에서 나온다. 문화를 통한 공감이야말로 소통과 통합의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문화가 요란하다거나 크다고 그만큼의 감동이 쏟아지는 것은 아니다. 영화 한 편을 수억 명이 보고 한마음으로 감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다. '포켓몬고'처럼 게임이 증강현실과 결합해 세계의 청소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문화다. 꼭 그렇게 요란하지 않아도 된다. 한 권의 소설이 사람들에게 이웃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해준다면 이보다 더 좋은 소통과 공감의 창(窓)은 없다.



문화는 '감동'이어야 한다. 감동은 공감에서 나온다. 문화를 통한 공감이야말로 소통과 통합의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사진은 한국 전통공연 '배비장전'의 한 장면.

이를 위해서는 어떤 편견도 없이 문화를 만드는 사람부터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 창의력이 생기고, 작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힘도 생긴다. 그들이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행복하게 열정을 다 바쳐 창작할 수 없다면 문화 역시 신음할 수밖에 없다.

문화 향유도 마찬가지다. 햇빛과 같아야 한다. 공동체, 즉 사회구성원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문화야말로 삶의 활력이자 정신의 복지이기에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만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계층과 연령과 지역이 다르다고, 또 돈이 없어서 누릴 수 없다면 그 문화는 복지가 아니다. 문화를 배우는 것과 문화적 창의성 계발도 차별 없이 이뤄져야 한다.

좋은 문화는 국민 정체성과 자부심을 심어준다. 그것은 민족의 전통과 역사를 관통하는, 우리의 정신과 사상이 스며 있는 유적과 인물에서 나온다. 때문에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문화 DNA를 확인하고 그 가치와 생명력을 높이는 길이다. 문화는 시간의 산물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 쌓이고 반복되고 잘 보존하지 않으면 문화는 단지 사라지고 마는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해서 이뤄진다. 감동의 문화를 만드는 것도, 문화를 향유하면서 감동하고 공감하는 것도, 그것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도 사람이다. 문화예술 창작자는, 그들이 만든 뛰어난 사상이나 불후의 명작들을 통해 결국 '인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다. 그 사랑으로 문화는 진보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든다.

그래서 문화 정책 역시 '사람'이 먼저다. 문화의 가치를 모르거나, 엉뚱한 것으로 착각하거나, 문화를 이념의 도구로 생각해 시대착오적인 블랙리스트나 만들고 있거나, 문화를 권력의 부산물쯤으로 여겨 전문성도 경험도 없는 문외한을 관리자로 여기저기 앉혀서는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념과 정파를 넘어 국민 모두의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문화의 저력을 보여준 프랑스 정부처럼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까지 풍요롭게 하는 정책을 올곧고 치밀하게 실천해나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기꺼이 함께하는 정부이기를 기대한다. G

이대현 |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복지서비스를 한 권에 담은 가이드북

책 | 2017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 권에 담은 가이드북이 출간됐다. 보건복지부가 출간한 이 책은 생애주기별·대상 특성별 가나다순 색인을 제시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특히 누구든지 쉽게 복지서비스를 찾아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상황별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현장 공무원 설문조사, 사회보장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개선 사항뿐 아니라 올해 신설·변경된 복지서비스 내용 등을 반영했다.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 등에서 이 책을 활용해 자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원문 제공 및 저작권을 개방하고 있다. 가이드북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사회보장위원회(www.ssc.go.kr),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저자 보건복지부

이번 주엔 뭐하고 놀지?

제70회 칸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된 한국 영화 '불한당'이 개봉돼 화제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복지서비스를 한 권에 담은 가이드북도 주목할 만하다. 가족의 달을 맞아 45년 차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 공연 등 이번 주도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김태형 | 위클리 공감 기자



중년을 위한 거침없는 에세이

책 | 하루를 살아도 당당하게

이 책은 당당하게 살고 싶은 중년을 위한 솔직 에세이로, 중년 이후의 삶을 당당하게 만들어가라는, 중년에게 보내는 응원을 담았다. 저자는 중년에 접어들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자존감이라고 말한다. 탄탄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어도 당당하기 때문이다. 자존감은 자신을 사랑해야만 형성되고, 그러려면 자신의 단점까지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저자가 말하는 중년 마음 관리의 핵심은 버리기다. 오래도록 빛을 발하는 가치는 겉모습에 있지 않다. 저자는 중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찬사를 보낸다.

저자 황인희(니케북스)



'다큐멘터리 3일'이 발견한 100곳의 인생 여행

책 | 사랑하면 보인다

2007년 무안장터를 시작으로 10년 동안 한국을 샅샅이 훑으며 총 500여 삶의 현장을 다녀온 제작진이 있다. 그들은 바로 KBS '다큐멘터리 3일' 제작진이다. 다큐멘터리 3일은 지난 10년간 평균 8%대의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면서 시청자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이 책은 '다큐멘터리 3일' 제작진이 발견한 사람 향기 물씬 나는 장소를 소개한다. 가령 서울 종로구 익선동 166번지 한옥촌이나 광주 1913송정역시장은 오랜 역사가 깃든 장소로 청년들에 의해 새롭게 태어난 곳이다. 노량진 고시촌, 용산 인쇄소 거리 역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들의 열정으로 생동감이 넘친다. 이 책은 일상이 무미건조하다고 느껴질 때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한다. 책을 통해 자신만의 다큐멘터리 3일 지도를 그려보는 것은 어떨까.

저자 KBS 다큐멘터리 3일 제작팀(인플루엔셜)

나쁜 놈들의 세상

영화 | 불한당



재호와 현수가 교도소에서 만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교도소 안에서 담배 사업을 벌이며 일인자로 군림하는 재호는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준 현수와 단짝이 된다. 그렇게 두 남자가 쌓아가는 우정은 혈육의 정보다 더 끈끈해진다. 출소 후 재호는 현수와 함께 마약 밀수를 하면서 조직을 장악해가고, 둘은 위기를 넘기면서 더욱더 가까워진다. 이후 재호는 현수의 결정적인 도움으로 조직의 일인자가 된다. 그렇지만 둘의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재호와 현수는 상대를 죽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결국 서로 총을 겨누게 된다.



개봉일 5월 18일

왕이 되기 위한 거대한 전쟁

영화 | 킹아서 : 제왕의 검





마법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 권력에 눈이 먼 보티건은 어둠의 마법사와 결탁해 형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한다. 아버지의 처참한 희생으로 목숨을 구한 아서는 자신의 출신을 모른 채 고아로 성장한다. 한편 보티건의 강압 정치에 핍박받는 백성 사이에는 바위에 꽂혀 있는 엑스칼리버를 뽑는 자가 진짜 왕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다. 아서는 어떤 힘에 이끌려 검을 뽑게 된다. 이후 아서를 제거하려는 보티건의 무리와 아서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원정대가 맞서면서 아서의 삶은 완전히 뒤바뀐다. 결국 아서는 자신의 진짜 운명을 받아들인다.

개봉일 5월 18일

가족의 진정한 가치

연극 | 사랑해요 당신



극단 사조가 만든 이 작품은 45년 차 부부인 상우와 윤애의 이야기를 펼친다. 작품은 잔잔하면서 애잔하다. 이들의 이야기는 마치 우리네 부모, 우리 이웃의 이야기처럼 너무나 현실적이다. 늘 건강하기만 했던 아내에게 치매가 찾아왔다. 부엌일조차 해본 적 없는 상우는 집안 살림을 하며 아내를 돌본다. 하지만 아내의 증상은 날로 심해져 아들 종태마저 알아보지 못할 지경에 이른다. 종태는 그런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자고 말하지만, 상우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한다. 윤애의 문제로 언성을 높이던 둘은 아픈 가족사까지 들춰내며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진다. 과연 이들의 이야기는 어떤 결말에 다다를까.

기간 5월 28일까지 **장소** 서울 대학로 예그린씨어터 **문의** 1566-5588



한영수 기증유물특별전

전시 | 내가 자란 서울

이 전시회는 사진작가 한영수가 활동했던 1956~1963년의 사진 작품을 통해 작가의 작품 세계와 당시 서울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1958년 한영수는 신선회(한국 최초의 리얼리즘 사진 연구 단체)에 입회해 본격적인 사진 활동을 시작했다. 전시는 2부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는 그가 활동했던 시기의 종로와 명동, 남대문시장 등 서울의 대표적인 장소와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작품을 보여준다. 2부는 한국전쟁 직후의 도심지, 한강, 골목길 등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와 서울의 장소성이 잘 드러나는 사진으로 이뤄졌다. 사진작가 한영수의 작업 과정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밀착인화 스크랩북'과 카메라가 공개된다.

기간 6월 6일까지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문의 02-724-0274

디지털 〈위클리 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포스트 페이스북 탭진 블로그

post.naver.com/mcst_pr
www.facebook.com/wegonggam
www.tapzin.com/app
ridibooks.com
blog.naver.com/mcst_pr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위클리 공감 누리집 www.korea.kr/gonggam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난 소감이나 제안을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5월 24일 까지 이메일(gonggam@chosun.com)로 보내주십시오.
〈위클리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공감 되새김 퀴즈' 정답과 함께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우편엽서를 이용해 아래 주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34
디지털큐브빌딩 13층 (주)조선뉴스프레스
〈위클리 공감〉 편집부 앞(우 03909)

지난 호를 읽고





'5월엔 편지를 쓰세요' 기사를 읽으며 손편지를 써본 적이 언제던가 생각해봤더니 20년 전 남편이 군대에 가 있을 때가 마지막이더군요. 예쁜 편지지를 고르려고 줄을 서고, 어떻게 하면 멋진 편지를 쓸까 고민하며 밤새 정성을 다하던 시절이 새록새록 떠올라 좋았습니다. 또 '느린 우체통'을 보며 남편과 아이들 모두 1년 뒤 배달되는 편지를 적어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1년 뒤 편지가 도착할 걸 생각하니 벌써 행복해지네요.

최은숙 | 경기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어 '이기영 (주)행복누리 대표' 인터뷰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평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기영 대표를 보니 마음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 세상 곳곳에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회사가 늘어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영희 | 서울 관악구 은천로

'대한민국 방방곡곡 행복한 봄 여행' 특집 기사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5월 긴 연휴 동안 여행을 계획하면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국내 여행지가 알차게 소개된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갈 곳이 참 많구나' 싶었습니다. 다양한 도시의 주요 코스부터 지역의 생생함을 살리는 여행까지! 〈위클리 공감〉을 옆에 두고 이번 여행 때 못 가본 곳은 앞으로 하나하나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혜림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공명선거' 관련 기사를 보다 이번 선거에서 변동되는 부분을 참고하게 됐습니다. 나의 한 표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 후보자 공약도 더 꼼꼼히 따져보게 되더군요. 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사하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모든 국민이 투표에 참여했길 바랍니다.

박형호 |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공감 403호 되새김 퀴즈

정성껏 준비한 정책 정보지 〈위클리 공감〉 기사를 천천히 곱씹어 읽은 뒤 답을 찾아보세요. 정보도 얻고 행운도 얻을 수 있습니다.

01

대한민국 제○○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 77.2%, 득표율 41.1%를 기록하며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통합, 소통, 개혁 등을 천명했다.

02

문재인 대통령은 최우선 공약으로 강조했던 공공부문 81만 개, 민간부문 5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임 후 첫 지시로 ○○○○○○ 설치를 주문했다.

03

오는 5월 20일 FIFA ○-○○ 월드컵 대회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된다. 한국을 포함한 총 24개 팀이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대회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01호 퀴즈 정답

[여행주간, 퇴직연금, 자유학기제]

당첨자

박형호(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이혜림(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정영희(서울 관악구 은천로)
최은숙(경기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도전! 나도 해볼까?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모 내용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그 밖에 시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만들기

응모 자격 제한 없음

접수 기간 5월 31일까지

응모 방법 ❶ 국민참여입법센터(community.lawmaking.go.kr)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누리집에서 접수 ❷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공모서식을 다운 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 접수(세종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중 택1

수상 혜택 최우수상 1편 상금 150만 원, 우수상 2편 상금 각 100만 원, 장려상 5편 상금 각 50만 원

문의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4, 6579

제1회 세계시민 UCC 콘텐츠 공모전

공모 내용 지구촌 시대, 책임 있게 행동하는 시민
❶ 민주주의와 선거 ❷ 세계 시민의식 중 주제 택1

응모 자격 제한 없음

접수 기간 6월 15일까지

응모 방법 공모전 누리집(www.gce-contest.or.kr)에서 접수

수상 혜택 대상 국내외 참가자 총 1편 5000달러, 최우수상 국내외 참가자 각 1편(총 2편) 각 2000달러, 우수상 국내외 참가자 각 1편(총 2편) 각 1000달러

유의 사항 3~7명 팀으로 제작, 접수된 작품은 1차 네티즌 심사를 위해 공모전 유튜브 채널에 함께 게시됨

문의 선거연수원 공모전 운영사무국 02-334-9044

2017 D2B(Design-to-Business) 디자인페어 공고

공모 내용 [기업] 기업이 제시한 물품의 디자인, [자유] 디자이너가 자유롭게 창안 또는 개선한 디자인(졸업 작품, 과제물 가능)

응모 자격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팀

접수 기간 6월 9일까지

응모 방법 대회 누리집(www.d2bfair.or.kr)에서 사전등록 후 작품 접수(1차 디자인 초안 및 설명, 2차 디자인 수정안, 출원사실증명서 제출)

수상 혜택 대상 1점 500만 원, 금상 3점 각 300만 원, 은상 약 29점 각 100만 원 등

유의 사항 출제 기업과 출품자 간 고용관계가 있거나 출품작이 출품자가 소속된 회사의 업무 영역에 속하는 경우 응모자격 없음

문의 디자인페어 사무국 02-924-0582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가슴속엔 불가능한 꿈을

어린 시절부터 꿈이 있었다. 이문세의 '별밤'을 듣고, 정은임의 '영화음악'과 배철수의 '음악캠프'를 듣던 그 시절의 내 꿈은 심야 라디오 방송의 디제이가 되는 것. 꿈을 꾼 지 20년이 훌쩍 넘은 올해, 나는 새벽 2시 라디오 방송의 디제이가 됐다.

첫 게스트는 배철수. 한 시절의 내 영웅을 '선배님'이라 부를 수 있게 된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진행자석과 게스트석이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이랄까. 떨리는 데 떨리지 않는 척하느라 정말 떨렸다, 라는 문장이 이처럼 적확해 보이긴 처음이었다. 방송이 끝나고 컨트롤 부스에 앉아 있던 피디가 말하길, 내 손이 계속 '덜덜' 떨렸다고.

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나 '인사이드 아웃'을 만든 픽사에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스물두 가지 규칙이 있다. 그중 제1번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원칙인데 소개하면 이렇다.

"캐릭터의 성공보다는 캐릭터가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을 중요시하라!"

픽사의 스토리텔링 규칙은 내가 반복해서 보는 원칙이다. 길을 잃거나 마음을 다잡아야 할 때, 나는 이들의 원칙을 읽었다. 내게 이 스물두 가지 규칙을 준 건 5년 전 모 방송의 드라마 피디. 당시 나는 드라마 대본을 3회까지 써놓고 완전히 헤매는 중이었다. 결과에 대해 묻지 마시라. 5년 전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면 나는 대단한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16부작 드라마의 작가가 됐을 테니까.

중요한 건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를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금 더 중요한 건 "인간은 구체적인 실패에서 가장 많이 배운다!"라는 사실이 내겐 보다 확실해졌다는 것이다. 나는 만신창이가 됐다. 그러나 그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었다.

내 평생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직업을 거쳤다. 순서대로 말하자면 광고회사 카피라이터, 인터넷 서점 에디터, 패션지 기자, 작가(소설, 웹소설, 칼럼, 인터뷰, 드라마, 라디오 대본 등등). 모두 '글을 쓰는 일'이긴 했지만 때에 따라 '팀 작업'이 돼야 하는 경험을 한 셈이다. 결국 일에 관해선 일생 편하게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호기심은 자주 익숙함을 이겼고, 덕분에 나는 '성공'보다 많은 '실패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내가 얼마나 자주, 많이, 망했는지 쓰다 보면 페이지가 모자랄 정도다. 아주 가끔의 성공과 잦은 실패가 내 일상이었다.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닐까?"

이 마법 같은 말에 직업이 대여섯 번도 더 바뀌었으니 말을 말자. 그것도 나처럼 겁 많은 사람이 말이다. 그러므로 나는 '용기'가 단단한 말이 아니라는 것쯤은 안다. 용기란 무모함과 달라서 엄청난 주저함과 두려움 속에서 끝내 기어 나오는 힘이다. 적어도 내겐 그랬다. 새로운 제안을 받으면 내가 얼마나 큰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지는 '나만'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런 '짓'을 계속하는가. 체 게바라가 한 말에 비밀이 있다.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살기 위해선 '리얼리스트'가 돼야 한다. 하지만 이 문장 뒤에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다.

"그러나 가슴속엔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

진행자로 시작한 첫 라디오 방송이 끝났다. 떨려서 혼이 나갈 것 같았다. 27년간 라디오를 지켰던 배철수 선배님의 마지막 말이 기억에 남아 여기 적는다.

"이제 한 식구 됐으니 언제 술이나 한잔 마십시다!"

백영옥 | 소설가

www.yongsanparkrt.com

용산공원 라운드 테이블

국민과 함께하는 용산공원 공개 세미나



2017
05.19
~11.18

공원모색
공원산책
공원탐독
공원서평

공원모색 : 공원의 재발견 현대공원의 담론과 이슈	배성호/배정한/서현/정석	5/19(금) 오후 2-5시	전쟁기념관 이병형홀
공원산책 : 용산공원 둘레길 함께 걷기 용산공원 경계에서 찾는 가치		5/27(토) 오후 2-5시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공원탐독1 : 공원, 예술의 장 공공예술과 문화콘텐츠	문정원/믹스라이스/이재준/정다영	6/23(금) 오후 2-5시	전쟁기념관 이병형홀
공원탐독2 : 공원,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공원 운영과 관리 전략	국내 공원 운영 관계자 / 박은실 / 최용석	7/21(금) 오후 2-5시	전쟁기념관 이병형홀
공원탐독3 : 용산공원과 역사유산 역사문화 유산의 보존과 활용	안창모/홍지윤	8/25(금) 오후 2-5시	전쟁기념관 이병형홀
공원탐독4 : 용산, 공원과 도시구조 용산공원과 도시구조개편	김기호/김승범	9/22(금) 오후 2-5시	전쟁기념관 이병형홀
공원탐독5 : 공원, 생태 너머로 용산공원의 생태적 의미 고찰	배정한/정영선/최재천	10/20(금) 오후 2-5시	전쟁기념관 이병형홀
공원서평 : 용산공원이라 쓰고, 서울이라 읽는다 전체 행사 전시 및 리뷰	배정한/청년프로그래머	11/18(토) 오후 2-5시	국토발전전시관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조경학회 플레이스온

후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건축역사학회 전쟁기념사업회 IaK 환경과조경



끊어진 산맥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과
별처럼 반짝이는 통일의 꿈을
백두대간 별자리 모양으로 표현

통일부
통일교육원
www.uniedu.go.kr



함께
꿈꾸는 내일
그래서 통일입니다

제5회 통일교육주간

2017.5.22(월) ~ 5.28(일)

통일교육주간 기념식 5.22(월) 14시 대한상공회의소
대학생 통일한국 모의 국무회의 예선: 5.20(토) 결선: 5.27(토)
지역통일교육센터·전국 통일관 체험행사

주최 통일부·교육부

전국 초·중·고 통일 주제 계기수업 5.22(월)~26(금)
통일 TIP 마로니에 축제 5.25(목)~26(금) 대학로

※**통일교육주간 소감문 공모전** 5.8(월)~6.11(일)